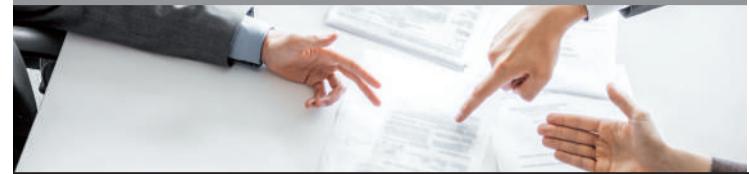


4~5》길게 읽기-PRIME 사업

6~7》대학알리미 상세분석

201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안내



Conventional 실험동물실

 수강신청기간 : 12월 14일(월) 10:30 ~ 12월 15일(화) 17:00
 등록금 납부기간 : 12월 16일(수) ~ 12월 18일(금) 16:00
 수업기간 : 2015년 12월 16일(수) ~ 2016년 1월 14일(목)
민주동산(구 고황문화동산)에
故 이수병 선생 동상 생겨

故 이수병 선생 동상 제막식을 시작으로, 민주동산에는 우리학교에서 민주화 운동에 힘썼던 인물들의 동상이 더 생길 예정이다. 경희총민주동문회 관계자는 “故 이수병 선생의 동상을 첫 번째로 정한 이유는 우리학교에 많은 민주화운동가들이 있지만 故 이수병 선생이 가장 대표적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PRIME 사업' 추진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향후 공학계열 인재 27만 7천 명 부족 예측 … 2천억 이상 사업비, 주요대학 '올인' 현상

2016년 추진 예정인 PRIME 사업이란?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최재원 기자 jankin1997@khu.ac.kr

2015년 교육부에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교육',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개혁 6대 과제'를 설정했다. 2016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은 교육개혁 6대 과제 중 하나로,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대학에서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대학 내 학사구조와 제도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21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PRIME 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CORE 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 사업'의 총 3가지 갈래로 나뉜다. 이 중 대학들의 관심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에 쏠리고 있다. CORE 사업에 정부 예산 344억 원이 편성되었고 평생교육 사업에 정부 예산 300억 원이 편성되었는 것에 비해, PRIME 사업에는 그 6배에 달하는 정부 예산 2,062억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PRIME(PRogram for Industry needs Matched Education) 사업은 사회변화와 수요에 맞는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대학의 체질개선을 통해 우리사회에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자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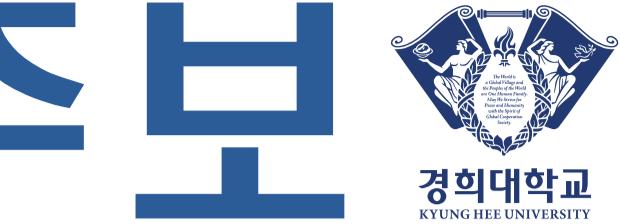
부의 입장은 정부 측이 지니고 있는 미래 인력수급 전망에서 기인한다. 정부는 향후 공학계열 인력 수급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일례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3년부터 2023년에 걸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보면 향후 공학계열은 27만 7,000명이 부족한데 비해 인문·사회계열은 6만 1,000명, 자연계열은 13만 4,000명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는 2015년 교육정책으로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내세운 셈이다.

PRIME 사업은 '다양한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모범적인 학생 중심의 교육개혁 성과가 널리 확산되도록' 한다는 목적 하에 사업 유형을 두 개로 분리했다. '사회수요 선도

대학'을 선발하는 대형 사업과 '창조기반 선도대학'을 선정하는 소형 사업이 그것이다.

우선 대형 사업은 사회변화와 산업수요를 고려한 대학 전반의 학사조직과 정원조정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으며 총 9개교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형 사업을 통해 교육부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진로와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만한 학과를 신설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 도입하여 학생의 커리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소형 사업은 창조경제, 미래 유망산업 등 특정 분야 중심의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내 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총 10개교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5면으로 이어짐



개인, 집단으로부터의 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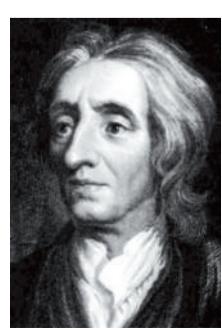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⑥

이영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개인이라는 말이 한국어에서 사용된 것은 백 년 밖에 되지 않았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개인이 없었는가? 그렇다.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로의 개인은 19세기까지의 동아시아에서는 없었다. 사실 이러한 사정은 전근대시대 인류 문명 모두가 동일하다. 개인이라는 말이 서양 세계에서 등장한 것도 불과 몇

백 년 밖에 되지 않는다. 인간이 개인으로 여겨진 것은 유럽인들이 근대세계를 발명하면서부터이다.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이라는



로크는 미국의 개척자들로부터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철학을 정립 했다고 한다

뜻의 indivisible에서 파생된 '개인(individual)'이라는 단어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5세기부터다. 르네상스 시기에 이르러 이전까지 신 중심이던 세계관이 인간 중심의 세계로 재편되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수로서의 개인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성을 가진 개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어 17세기에 이르러 계몽주의 사조가 일어나면서 철학, 법률, 사회이론 등에서 개인주의가 적극적으로 발현되었고 개인이라는 개념은 인간과 세계를 파악하는 중심 개념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긴 인류사에서 보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개인이라는 말과 그에 상응하는 개념은, 아직도 세계 여러 곳에서 제대로 이해되지 않거나 설명 이해되더라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혹시 받아들여지더라도 문명권에 따라, 그리고 나라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결정권이 상당히 제한된 이슬람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진 미국 같은 곳도 있다.

▶11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hunews/>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OYQ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전문가 칼럼

대학 교육의 '질 보증제도'의 필요성

오한석 (기계공학) 교수 ▶11면



시선

사설

PRIME사업, 고질적 문제 해결할 기회로 삼자

PRIME사업이 막대한 규모의 지원금으로 대학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나름의 전략과 해법으로 이 사업을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학교 역시 미래정책원을 중심으로 PRIME사업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학교 구성원 사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는 이 '우려'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 된다. 하나는 준비과정의 투명성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PRIME사업의 취지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먼저 '준비과정의 투명성 여부'를 보자. 최종적으로 이 사업에 선정되는 대학의 수는 총 19개교 내외에 불과하다. 때문에 많은 대학이 준비과정 자체를 대외비 축소하며 학내 구성원들에게 조차 '보안'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학교 미래정책원 역시 그러하다. 그런데 대학 입학정원이 고정되어 있는 우리학교의 여건을 고려하면, PRIME사업이 요구하는 '진로·취업 중심의 학과개편'은 필연적으로 정해진 총량을 둘러싼 학과·학부 간의 제로섬 게임 양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성원은 현재 아무런 관련정보도 공유받지 못하기에 그 어떤 대비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 도래할 커다란 변화의 흐름은 구성원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PRIME사업의 취지 자체가 '후마스터스 칼리지'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 중심의 교육철학을 표방하는 우리학교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다. PRIME사업이 요구하는 학과개편의 지향점은 그간 우리학교가 '대학 교육의 가치와 위배된다'는 판단 하에 전략적으로 배제했던 노선이다. 이 같은 기조를 버리고 PRIME사업을 위한 학과개편에 나선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교육관을 우리 손으로 버리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

이 같은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는 '학과개편'이라는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현재 맞닥뜨린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 방책을 이미 짜고 있다. 이번 학과개편을 캠퍼스 이원화 구조를 가다듬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중복학과 논란 등으로 캠퍼스 이원화 구조가 모호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학교의 상황에서는, 무분별하고 일괄적인 인원조정보다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인원조정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우리신문이 다음호에 실릴 지령 1600호 기념 특집기사를 준비하며 과학한 바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양 캠퍼스 유사학과 정리를 통해서만 약 1,800명의 인원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PRIME사업을 대비하는 데 충분한 규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학교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차원인 만큼 경희 교육철학에 위배되는 방법론도 아니다. 게다가 구조조정의 여파가 최소한의 규모로 한정되기에 상대적으로 '소통의 문제'와 이로 인한 '혼란의 문제'도 최소화된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와 관련해, 우리신문은 다음 호에서 '하나의 경희'를 테마로 한 특집기사를 통해 이러한 방법론의 현실성과 효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타이에 휘둘리는 PRIME사업이 아닌 자의적 필요에 대응하는 학과구조개편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이기 때문이다.

국제캠 푸드코트에 대한 학생 불만 높아져

미디어 여론동향 2015. 11. 3 ~ 11. 15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국제캠퍼스 우정원 푸드 코트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높다. (국제캠 우정원 내 푸드 코트 논란 속 가격인상, 그 내막은? 대학주보 온라인, 2015.11.10) 학생들은 "카드와 현금을 구분 없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음식의 질 대비 가격이 비싼 것 같다"와 같은 의견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음식 가격 인상에 대해 푸드 코트 상인들은 재료값 상승이나 카드수수료와 같은 현실적 이유를 들었다. 또한 푸드 코트 주인 B씨는 "우정원 내 음식점이 늘어나면서 매장 운영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음식 가격을 올렸지만 가격 인상 후 학생 수는 더 줄었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가격 인상의 또 다른 이유로 임대료 인



이주의 주제 - 캠 간 셔틀버스 운행 시간 문제

융·복합 인재 양성, '기본'부터 시작해야

정혜빈 기자
hb0204@khu.ac.kr

최근 고등교육에 있어서 '융·복합 인재 양성'은 주된 화두다. 우리학교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게 '학문간 융합 교육'을 가치로 내걸고 융·복합 교육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해에는 융합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타 계열 학과에서 이공계 학과 강의를 듣거나 다전공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학과 간 융합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시되는 방향성과는 반대로, 다전공 제도를 활용하는 학생들 위한 실질적인 환경이 잘 갖춰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례로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11270번째 사연에 달린 "서울캠퍼스(서울캠) 수업과 국제캠퍼스(국제캠) 수업을 함께 수강을 하는 것은 운 좋게 셔틀버스 운행시간과 수업시간이 맞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댓글은 학생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다수의 '좋아요'가 눌렸다.

댓글을 작성했던 캠퍼스 간 다전공자 임수영(경제학 2011) 군은 "학생 입장에서 등록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도가 뒷받침되어있지 않고 있다"며 기본적인 이동 수단에 대한 시간·횟수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실제로 셔틀버스 이용자 103명을 대상으로 한 '캠퍼스 셔틀버

스 운행시간'에 대한 수요조사 진행결과에서, '캠 퍼스 셔틀버스 운행시간에 불만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중 83.5%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캠퍼스 셔틀버스의 증차를 원하느냐'는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인원인 전체 중 85.4%의 학생이 '원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렇듯 캠퍼스 셔틀버스 운행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온 상태다. 하지만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는 총무팀과 총학생회 모두 "업무적으로 여력이 안 돼 진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그 책임을 피하고 있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현실론'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내부 상황과는 반대로 사회 전반의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특히 취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공학 교육에 대한 수요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과거 국제캠을 위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캠퍼스 간 셔틀 운행이 공학계열을 다전공하는 서울캠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반대의 상황 역시도 현재의 구조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원수다.

학교는 이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과거 우리신문과의 취재에서 총무팀은 "자체적으로 변화를 주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불만이 크면 논의를 거쳐 변화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던 만큼 응답 인원의 숫자는 이제는 '변화를 주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학문 간 통합'은 거창한 문제가 아니다. 기본부터 시작해 나가는 '변화'야 말로 진정한 '학문 간 통합'의 기반이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일 것이다.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 생긴다

- 단선으로 치러지는 총학선거를 보며

세시봉



백승철 (편집장)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표자가 행사하는 권력의 정당성은 선거를 통해 표출된 국민들의 지지에서 나온다. 대표자들이 자신이 행사할 권리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받는 과정이 바로 선거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바야흐로 2016학년도 학생회를 이끌 제48대 총학생회(총학) 선거운동이 양 캠퍼스에서 한창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대부분이 '단선'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도 국제캠 총학 선거를 제외한 서울캠 총학·총여 선거와 국제캠 총여 선거 또한 모두 단선으로 진행됐다. 이처럼 최근에는 단독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는 경우가 흔해졌다.

흥미롭게도 선거와 시장은 여려모로 유사하다. 재학나 서비스가 소비되는 시장에서, 공급되는 재화가 한 개의 회사에서 생산한 한 개의 제품뿐이라면 소비자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공급자로서는 제품의 가격을 낮추거나 제품의 품질을 높여 소비자들의 더 많은 선택을 유도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어지게 된다.

여기서 '경쟁'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공급자가 최소한 둘 이상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둘 이상의 공급자가 존재치 않아 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시장 자체에 효용이 없어,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경우다. 이 경우, 새로운 공급자가 나타나지 않아 기존 하나의 공급자만 있게 되면 이 공급자가 시장에서 소비자의 기호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 효용은 낮아지게 된다. 두 번째는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규 진입자가 시장참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독점 공급자는 경쟁자가 없어 더 좋은 품질과 더 좋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그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문제는 분명해진다. 이처럼 선거가 단선으로 진행된다면 후보자는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유권자를 사로잡기 위한 공약개발과 활동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공약을 내더라도 당선될 수 있다는 안이함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도 단선은 흥미나 관심이 반감될 수 밖에 없다. 경쟁할 상대가 없는 스포츠 경기처럼 김이 빠지는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선거에서도 전체적인 관심 하락으로 이어진다. 여러 후보가 있으면 유권자들은 공약과 후보자에 대해 꼼꼼히 검증한 후 누구에게 투표할지 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후보가 하나 밖에 없다고 그 후보가 '부실한' 후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나 또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 입장에서 그 선택지가 하나 밖에 없다는 점은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한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캠퍼스 셔틀버스 이용자 83.5%, '운행시간에 불만 있다'

셔틀버스 이용자 불만

정혜빈 기자 hb0204@khu.ac.kr

양 캠퍼스를 오가는 셔틀버스 운행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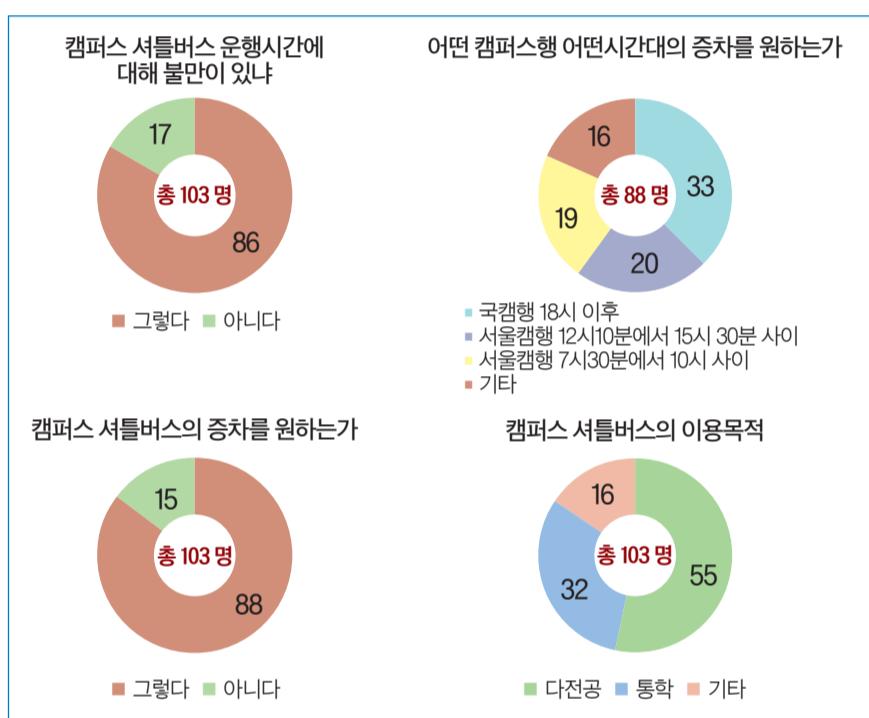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11270 번째 사연에는 '국제캠퍼스(국제캠) 행 셔틀버스는 가장 이른 운행시간이 아침 10시이고 마지막 운행시간이 5시 30분이다'라며 '서울캠퍼스(서울캠) 수업과 국제캠 수업을 함께 수강을 하는 것은 운 좋게 셔틀버스 운행시간과 수업시간이 맞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댓글이 달렸다.

또한 시간표 공유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도 '캠퍼스 간 복수전공을 하기에 셔틀버스 운행시간이 너무 애매하다'며 '강의시간이랑 전혀 맞지 않는 버스시간표'라는 내용의 글이 다수 게시된 바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캠퍼스 간 이동을 하려면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때문에 학생들은 약 1시간 10분 정도면 편리하게 양 캠퍼스를 오갈 수 있는 셔틀버스 탑승을 선호한다. 셔틀버스 출발 시각은 국제캠에서 오전 7시 20분, 7시 30분, 10시, 오후 12시, 12시 10분, 3시 30분이며, 서울캠에서는 오전 10시, 오후 12시, 1시 30분, 4시, 5시, 6시이다. 셔틀버스는 학기 중 평일 기준, 하루에 총 12회 운행된다.

수업시간과 맞지 않은 운행 시간 막차 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도 커

우리신문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34명의 학생들에게 '셔틀버스 운행시간이 수업 시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6명의 학생을 제외하고 모두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니다'라고 답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캠퍼스 간 다전공을 위해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신정렬(한국어학 2009) 군은 "서울캠 행 셔틀버스 막차가 15:30분 이라 수업이 그 시간에 끝나면 셔틀버스 이용이 어렵다"며 "막차시간을 18시까지 연장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인홍(전자·전파공학 2014) 군은 "셔틀버스 배차 간격이 커 수업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



다"며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시간대를 다양하게 했으면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사무처 총무팀 박수인 계장은 "과거에 셔틀버스 운행시간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는 잘 모르나, 학생회의 언급이나 학생의 민원을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례로 국제캠 총학생회 김용석(화학공학 2012) 회장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총무팀과 학생회 간의 미팅에서 "셔틀버스 시간대에 따른 학생들의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

해 불만이 있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기존 셔틀버스 운행 시간에 대한 불만으로 국제캠 행 18시 차에 대해 '수업 끝나고 타기에 너무 족박하고 탑승인원에 비해 자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캠 행 15시 30분 차에 대해서는 '16시 30분에 시작하는 수업을 지각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서울캠 행 7시 20분 차에 대해 '교통상황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1교시 수업을 지각하게 된다'며 '수업시간에 맞게 시간을 앞당겨 조정했으면 한다' 내용이 있었다.

'캠퍼스 셔틀버스의 증차를 원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85.4%가 '원한다'고 답했다. 그 중에서 18시 이후의 국제캠 행 셔틀버스에 대한 증차요구가 37.5%로 가장 많았다.

긴 배차간격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던 만큼 12시 10분에서 15시 30분 사이에 서울캠 행 셔틀버스에 대한 증차요구 역시 22.7%를 기록했다. 이어서 7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서울캠 행 셔틀버스에 대한 증차를 요구하는 응답자도 21.6% 이었다. 13시 30분에서 16시 사이에 국제캠 행 셔틀버스와 국제캠에서 열리는 1교시 수업을 듣기 위한 10시 이전 버스의 증차요구도 있었다.

학문간 융합을 강조하는 학교 다전공을 위한 지원은 미비해

한편, 전체 응답자 중 53.4%는 '캠퍼스 셔틀버스의 이용목적'에 대해 '다전공'이라고 답했다.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11270 번째 사연에 셔틀버스 운행시간에 대한 불만을 댓글로 달았던 임수영(경제학과 2011) 군은 "학생 입장에서 등록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도가 뒷받침 돼있지 않다"며 캠퍼스 간 다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겪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학문 간 융합을 강조하며 다전공 제도를 마련하는 우리학교에서 다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물리적 지원은 막상 미비한 상황이다. 우리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박 계장은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불만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두개의 취진처' 정보공시·취업프로그램 제각각, 취업준비생들 혼란 가중돼

프로그램 방향성, 리쿠르팅도 문제 … 취진처, "불분명한 이원화 해결되면 역량집중 가능할 것"

하나의 경희 #3-1. 취업으로 본 경희

이시은 기자 dtldms77@khu.ac.kr

우리학교 취업진로지원처(취진처)가 인턴십·기업채용 공고 등 취업정보를 캠퍼스 별로 따로 공시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더해 양 캠퍼스 취진처에서 운영하는 취업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캠퍼스 리쿠르팅 현황이 각각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로 집중되고 있어, 캠퍼스 별로 존재하는 소수 계열들이 도외시된 상태다.

기존부터 우리학교의 취진처는 각 캠퍼스 별로 다르게 존재해왔다. 현재도 온라인 포털 상에는 '경희대학교 취업진로지원처'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라는 명칭으로 구별돼있다. 공시내용 또한 학생 개인의 취업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경력관리', 학교로 추천의뢰가 들어온 기업정보와 일반 공채정보를 표기하는 '채용정보' 등으로 항목은 비슷하나 속내용은 모두 다르다.

취업프로그램 역시 '취업스쿨'이라는 일부 프로그램의 명칭을 제외하고 학년 단계



별로 모두 다르다. 특히 국제캠퍼스(국제캠)의 경우 올해부터 각 단과대학과 연계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시행되는 'KHU 사회진출지원 5 Step'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양 캠퍼스 간의 취업 프로그램 격차는 점점 심해지는 양상이다.

취진처 측은 소속 캠퍼스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모두 활용 가능한 정보이고, 표기만 나눠 하는 것이므로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국제캠 취진처 측은 "추천채용 정보 등이 마치 각 캠퍼스별 소속 학생만 지원 가능하게 꼽을 수 있으나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

신청 가능하다"며 "운영만 캠퍼스별로 따로 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취업 프로그램은 "기숙사 등 환경적인 이유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업정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의 반응은 다르다. 취진처 페이지에 접속해 본 적이 있다는 신다진(컴퓨터공학 2011) 군은 "공시정보의 채용 범위가 캠퍼스별로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분리표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학년별 취업 프로그램 또한 서로 달라 캠퍼스 간 다전공자 입장에

선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는 취업 프로그램들의 '방향성'과 캠퍼스 리쿠르팅에서도 제기된다. 각 캠퍼스가 쏟는 취업역량이 '특정 계열'에 쏠리면서, 소수의 계열들이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캠 취진처 노동섭 부처장은 "외부에서 보는 각 캠퍼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캠퍼스 리쿠르팅 기업도 각 캠퍼스의 중심계열에 맞게 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서울캠 행 캠퍼스(서울캠) 취진처 측 역시 "서울캠으로 오는 기업 리쿠르팅 직무의 80% 가량이 인문·사회계열"이라며 "서울캠의 학과 특성이 이유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이 같은 정보를 캠퍼스 간에 공유해 주고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소수 계열의 취업준비생은 정보를 알 길이 없다. 현재 각 캠퍼스 취진처는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리쿠르팅 정보를 발송하는 상태다.

국제캠 취진처 이용택(화학공학) 쳐장은 "아무래도 국제캠퍼스가 이공계열 중심, 서울캠은 인문·사회계열 중심 아니겠느냐"며 "장기적으로 각 취진처 입장에서도 한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캠 취진처의 경우, 취업스쿨 강좌 내부에 몇몇 인문계열 취

업자를 위한 강좌를 내세웠다가 인원이 모자라 폐강된 사례가 있다. 반면 공학계열의 취업스쿨 강좌의 경우 기준 강의 수요를 훨씬 넘어서 증설까지 된 상태라, 내부 프로그램들의 방향성이 한쪽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양 캠퍼스가 명확한 기준으로 학과분류가 된 상태도 아니라서, 각 캠퍼스에 존재하는 소수 계열의 고종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캠 학과를 다전공 중인 어문계열 학생 신혜인(일본어학) 양은 "캠퍼스 리쿠르팅만 봐도 같은 문과라지만 소수인 국제캠 문과가 취업에 직면한 어려움이 훨씬 큰 것 같다"며 "복수전공이라도 해보겠다고 서울캠까지 올라가는데, 돌파구가 이것뿐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 캠퍼스 간 계열 정리가 명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 프로그램이나 캠퍼스 리쿠르팅 등의 취업정보들은 각 캠퍼스의 중심 계열에 쏠리고 있어 앞으로도 관련 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 이어지는 온라인기사에서는 #3-2. 기업의 '사실상 분교표기' 문제에 대해 다룬다

기획

미흡한 준비가 갈등 빚어 ...

길게 읽기 - PRIME 사업

황경선 기자 sunny96@knu.ac.kr
최재원 기자 jankin1997@knu.ac.kr

PRIME 사업 계획이 공개된 뒤 대학가는 크게 술렁였다. 물론 그 일차적인 이유는 사업에 선정될 경우 받게 될 지원금의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파격적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대형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총 1,500억 원으로,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 사업)'으로 선정된 9개 내외의 대학에게는 평균 150억 원,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총 10개교 내외로 추려지는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 사업)'에게는 총 500억 원, 다시 말해 대학별 평균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만한 지원이 따르는 만큼, 선발된 대학이 감내해야 할 사항은 결코 적지 않다. 이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대학은 사실상 앞에서 언급한 교육부의 주요한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원감축 혹은 이에 준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해야만 한다. 대형 사업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10%(최소 100명 이상) 또는 200명 이상을, 소형 사업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5%(최소 50명 이상)나 100명 이상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이 기본 참여 조건이다. 즉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단순히 학사조직과 학과개편 등 제도적 측면의 개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캠퍼스(이원화 캠퍼스) 간 정원조정이나 교원이 등을 포함한 대학(본·분교) 간 정원조정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학 입장에서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학사구조조정을 강행했는데 탈락해버릴 경우'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선정될 경우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의 지원금이 동인(動因)이 되어 많은 대학들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PRIME 사업을 위한 준비에 앞 다퉈 돌입하고 있는 중이다.

우려의 목소리와 회의의 시선

위험 부담 요인이 큰 만큼, 당연히 PRIME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여러 대학의 구성원은 제일 먼저 사업 준비 과정에서 대학과 구성원



‘소통의 부재’는 PRIME 사업의 진행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이다.

“

간에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걱정한다. 사업의 주요 내용 자체가 사회 수요에 맞는 학문 간 정원 조정이므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각자의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정원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이런 정황에 따라 학사구조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대학 구성원은 그 범위가 거의 전부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대학은 이 민감한 안건에 대해 촉박한 사업 일정 속에서 ‘전 구성원’과 투명하고 허물없는 대화를 진행해갈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많은 대학 구성원들이 PRIME 사업에 대해 의심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다.

학사구조개편이라는 이슈는 언제나 대학본부와 구성원 간의 갈등을 촉발하곤 했다. 지난 3월 31일 건국대학교(건대) 학생 300여 명이 총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건국대 행정관을 점거한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당시 건대 대학본부에서는 학사구조개편을 통한 학과제 전환과 학과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는데,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분노를 산 것이다. 당시 건대 학생들의 입장은 ‘설령 학사개편이 옳다고 하더라도 구성원 간의 논의가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소통의 부재’는 PRIME 사업의 진행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이다. 지난 2주간 진행한 우리신문의 취재 결과, 서울지역의 10개 주요 대학에서는 이 PRIME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 ‘전략 유출이 우려돼 진행 과정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선정되기 위한 경쟁률이 높다’는 사실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조차 ‘정보의 장막’이 쳐지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해당초 구성원과의 긴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시간적 여유 자체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부가 이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의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 10월 21일이다. 사업 선정일이 오는 2016년 2~3월로 예정되었으므로, 사업 준비 기간은 대략 4~5개월이다. 문제는 이 사이에 2~3개월에 달하는 겨울방학 기간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모든 구성원이 모여 사업 준비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결국 대다수의 구성원이 주요한 논의 과정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받기도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7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교육부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공청회’에 참석한 ‘대학교육연구모임 대학교발자(대학고발자)’ 소속 학생들은 ‘왜 우리에겐 묻지 않습니까?’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대학교발자 전진희 운영자는 “대학의 역할은 연구와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지성인을 길러내는 것인데, PRIME 사업이 지향하는 사회수요에 따른 인재 양성은 곧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낸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학과통폐합이나 학사개편 등이 오로지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바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PRIME 사업을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이 정책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정부는 PRIME 사업을 통해 대학들이 사회수요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

『그녀는 예뻤다』 취업·창업·진로특강 여성 리더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취업·창업 등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경험과 노하우를 전해 드리고자 성공한 선배 CEO 및 코칭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 및 토크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제 : 취업·창업·진로특강, 여성 리더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일시 : 2015. 11. 19(목) 15:00 ~ 17:00

●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생명과학대학 시청각실(1층)

●프로그램 내용

구분	내용
취업·창업특강	○ 여성벤처기업 선배CEO가 전하는 창업스토리 - 공기 청정기 시장에 새바람을 주(주)에어비타 이길순 대표
진로특강	○ 정밀로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하면 성공 한다 자기개발 및 셀프 리더십 - 코칭을 수출하다! 한국 최초의 코칭 전문기업 (주)인코칭 홍의숙 대표
토크콘서트	○ 선배CEO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사회자+연사+청중) - 연사 : 여성벤처 청년위원장 선배CEO, 학생대표

●주최 : 중소기업청, 한국여성벤처협회,

경희대학교 취업진로지원처, 창업보육센터, 총(여)학생회

●문의사항 : 취업진로지원처(031-201-3061)

※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며, 경품추첨이 있습니다.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맞춤형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청년층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안내

● ‘취업성공패키지’란?

-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취업지원 상담프로그램으로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파악 후 진로 및 취업목표설정을 통해 취업까지(최장 1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어서, 자기소개서 컨설팅과 직무 분석 특강을 포함한 다양한 취업특강을 지원하여 참여자들이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단계 별 참여 수단까지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미취업 출업자 또는 출입예정자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필히 신청하여 취업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 지원혜택

진행단계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기간
1단계 : 기초상담	- 목표수립, 직업설리검사, 이어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참여수당(15만원)지급	1주~3주
	-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 후 출련참가 가능	
2단계 : 직업훈련 (선택사항)	- 일반직종과정 훈련 *훈련비 200만 원(자비부담 0%~30%) + 훈련수당 최대 월28만 원 4천원 - 국가기인증취득사업직종 훈련 *훈련비 전액 + 훈련수당 최대 월41만 원 6천원 훈련과정검색 www.hrd.go.kr 참조	6개월 (훈련기간)
3단계 : 집중취업상담	- 취업정보제공, 집중취업일선, 면접클리닉	3개월~6개월

※세부사항은 <http://www.work.go.kr/pk/index.do> 참조

● 참여 대상자 : 미취업 졸업생 및 4학년 재학생

※ 참여제한 : 실업금여 수급자,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 신청방법 :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gemhong48@unies.com)로 제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가신청서」

이름	학번	학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 (인)				

※세부 문의사항(유니에스중부센터) : Tel. 02-6011-1335~1337 Email. gemhong48@unies.com
홈페이지 : <http://job1.knu.ac.kr> 연락처 : 02-961-0167 위치 : 청운관 1층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11월 셋째 주(11.16~11.20)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미래는 준비된 자의 세계”

●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담)

행사제목	일시	장소
개임별 채용전체형 인턴 채용면담 및 모의면접	11.16(월)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당실
미국번화사 직업설명회	11.17(화) 15:00~17: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경희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시작 5분전까지 착석)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더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계 출석협조전 발급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 취업특강

특강 제 목	일 시	장 소
취업술작성법(배우복 교수님)	11.18(수) 13:00~15:00	청운관 B117호
금융권 취업상담(송승영 교수님)	11.18(수) 17:00~18:00	내오관 104호
수리2(도파데이터처리) 대기업 졸재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진성 교수님)	11.19(목) 15:00~17:00	내오관 103호
외국어/영어 면접/전공교수님	11.20(금) 17:30~19:30	청운관 B117호

● 취업진로지도 및 출석 컨설팅(취업상담)

- 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어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상세 내용

상담유형	컨설팅터	일시	장소	신청방법
취업 상담	분야별 컨설팅 4명	월~금 (각 컨설팅별 354호~356호 일정 상이함)	오비스홀 제1법 107~107호	증합전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메뉴에서 신청 (컨설팅별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주의사항				

● 취업준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집단상담: 15명 내외)

특강제목	일시	장소	신청방법
취업준비, 무어디든지 물어보세요 (박언경 교수님)	11.18(수) 16:00~18:00	취업진로지원처 회의실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메뉴에서 신청 (컨설팅별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PRIME 사업 초석 쌓기 주목

은 PRIME 사업에 대해 별반 관심을 가지 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PRIME 사업을 소개하는 교육부의 보도자료 어디 에도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효용 에 대해서는 기재해놓은 바가 없다. 기업 에 아무런 메리트가 없다면 기업이 정부의 PRIME 사업에 호응할 이유가 하등 존재 치 않는다. 돌이켜보면 기업은 항상 '사회 수요에 맞지 않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면서 대학에 비판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당사자다. 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맞는 대 학의 체질개선으로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 한다는 PRIME 사업의 목적을 충족시키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것을 이끌어 낼 교육부의 대안제 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회의론'의 지적 사항이다.

중앙대, 적극적인 행보 눈길

앞서도 언급했듯, 다양한 우려와 회의의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현재 각 대학 은 여전히 이번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준 비에 돌입하고 있다. ACE사업 같은 다른 예산지원 사업에서도 '자발적 정원 감축' 을 비롯한 학사구조개편을 진행한 대학에 기산점이 부여되므로, 큰 예산이 걸려있는 PRIME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에서다.

PRIME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곳은 중앙대학교(중앙대)다. 중앙 대는 지난달 2주에 걸쳐 사범대학, 경영경 제대학, 인문대학, 자연대학, 사회과학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PRIME 사업의 취지와 배경을 알리는 '대학 비전 달성과 프 라임 사업' 설명회를 열만큼 구성원간의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어 PRIME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 업계획을 논의하는 대표자 회의를 진행 하기도 했다. 이 회의는 구성원 간의 합의 를 도출하기 위해 앞으로도 여러 차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밖에도 중앙대 측 에서는 PRIME 사업을 담당할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해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숙명여자대학교(숙명여대)도 자체 적인 계획에 공과대학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 PRIME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 하고 있다. 숙명여대는 내년에 공과대학 을 신설해 입학 정원을 60명 가량 늘릴 예정이다. 때문에 PRIME 사업의 선정 여

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정원 조정 및 재배치 규모'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 자체적인 분석 결과다. 그래서 숙명여대는 PRIME 사업 선도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학사 구조 개편과 학사제도 개선안을 체계적으 로 마련하려는 노력 중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학교는 PRIME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프라임 사업 준비를 주관하고 있는 미래정책원 측은 '아직까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 답변이 불 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이는 지난 7월에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럴면 8월 말 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이라고 답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행보다. 사업 선정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답변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타 많은 대학들처럼 전략 노출을 우려해 방어적인 답변을 고수하는 중일 수도 있다.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상기한 바와 같이 '구성원에 대한 정보의 장막' 이 될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결론이 도출 되든 커다란 변화가 수반되는 만큼, 구성 원은 '통보' 형태의 결정에는 크게 반발 할 가능성이 농후한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각도에 걸친 취재 결과, 우리학교 의 사업 준비 행보는 양 캠퍼스 간 논의는 물론 캠퍼스 내부에서의 구성원 간 논의도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향후 구성원 간 마찰에 관한 우려를 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학교, 유사학과 통·폐합 캠퍼스별 특성화 기회 될 수도

적어도 우리학교에게 있어서, 이 PRIME 사업에 대한 준비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 되는 사안도 아니고, 대학본부 차원에서 결정해 도 되는 사안도 아니다. 이는 단순히 큰 예 산이 걸려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PRIME 사업은 그 '참여 조건' 자체가, 우리신문 이 최근 <하나의 경희> 기획 시리즈를 통 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유사학과 통·폐합문제'와, '캠퍼스별 특성화' 작업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할 중요한 계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PRIME 사업의 학사

사업 유형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
유형별 내용	사회 변화와 산업수요 중심으로 대학 전반의 학사조직과 정원 조정 선도	창조경제, 미래 유망산업 등 특정 분야 중심의 인력 양성을 위한 개편
특 징	• 진로·취업 중심의 학과 개편과 학생 중심의 학사구조 개선 •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도입과 학생의 진로·경력 관리 강화	• 신기술·직종, 융합전공 등 창조 경제와 미래 유망 산업 인재양성 • 창업학과, 사회 맞춤형 학과 등 선도적 교육모델 도입
참여 조건	입학정원 10%(최소 100명 이상) or 200명 이상 이동	입학정원 5%(최소 50명 이상) or 100명 이상 이동
	동일 계열 내 이동은 50%만 인정 (계열 기준은 대교협 표준분류체계)	
지원 규모	• 총 1,500억원 (9개교 내외) • 대학별 평균 150억원, 최대 300억원	• 총 500억원 (10개교 내외) • 대학별 평균 50억원
권역 구분	•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	• 5개 권역으로 구분, 균형 지원

〈PRIME 사업의 학사 구조 개편과 학사제도 개선(예)〉

구 분	학사 구조 개편		학사 제도 개선	
	대학 내	대학 간	정원 유연화	다전공 활성화
양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학과 신설 • 학과 증원·폐지 또는 강축 • 학문간 융복합 • 캠퍼스간 정원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간 정원조정 (교원이동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적 정원제 • 자유 학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전공 • 연계전공 • 융합전공
질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약정형/연계형 주문식 교육과정 도입 등 현장 실무 능력 제고 • 다양한 기초학문 학업 이수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 함양 • 다전공 활성화, 융복합 교육과정 확대 등 문제해결형·통섭형 인재 육성 		

구조 개편과 학사제도 개선 예'에 따르면,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과 신설 ▲학과증원·폐지 또는 강축 ▲학문간 융복합 ▲캠퍼스간 정원조정과 같은 직접적인 학사 '구조'를 개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학과 정원 조정을 활발하게 할수록 사업 선정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학교는 국제캠퍼스에는 응용학 문 위주의 학과들을, 서울캠퍼스에는 순수 학문 위주의 학과들을 개설해 '캠퍼스 이원화'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국제캠퍼스가 여전히 대외적으로 '분교'라는 오해를 받고 있을 정도로 캠퍼스별 정체성 확립이 모호한 상황이다. 게다가 도통 해결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유사학과 논란은 우 리학교의 이런 '아킬레스 건'을 계속해서

PRIME 사업이 요구하는 학사구조 개편작업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당 쓸고 동전도 줍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

PRIME 사업이 요구하는 학사구조 개편작업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당 쓸고 동전도 줍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찌르는 이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학사구조개편을 단행할 필요가 있는데, 마침 PRIME 사업이 요구하는 학사구조 개편작업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당 쓸고 동전도 줍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신문 지령 1600호 특집호로 발행되는 다음 호에서는 이 '하나의 경희'를 테마로 한 특집기사를 전개 하며, 이 PRIME 사업과 '하나의 경희'가 만날 수 있는 접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면에서 이어짐

일례로 창업학과나 사회 맞춤형 학과 등 선도적 교육모델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 PRIME 사업의 선도 대학으로 유치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까다로운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부의 주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 여건과 내용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 유치와 사회 진출을 위한 진로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설령 학사조직 확대와 학생 증원이 발생하더라도 대학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또한 현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의 사회 진출 역량을 키워야 할 강조하고 있다. 가령, 대 학과 기업의 공동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해 대학교육의 질적 개혁을 달성 하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죽소 또는 폐지되는 학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 해당 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해당 학과 교원들의 신분 보장을 위한 대책까지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해 오는 3월 즈음에 PRIME 사업 지원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각 대학의 여건과 특성, 학사구조 개편 분야와 정원 조정 규모, 사업비 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2016학년도 전기 국제대학원 석·박사 과정 신입생 모집

• 모집 분야 : 국제통상학과 / 국제개발학과 / 국제경영학과

• 모집인원 : 석사과정 00명 / 박사과정 00명 (국제개발학과에 한함)

• 지원자격 : 석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박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전형방법 : 국내거주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40%), 영어작문시험(20%)
해외거주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60%)
※ 해외거주 지원자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하며, 일자는 별도 통지

•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15년 11월 16일(월) ~ 11월 27일(금)

국내 거주자 인터뷰 및 영어작문시험 : 2015년 12월 12일(토) 오후 12시 30분
해외거주자 인터뷰 : 2015년 12월 7일(월) ~ 12월 11일(금) 기간 중 개별안내

합격자 발표 : 2015년 12월 21일 월요일(예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국제대학원 홈페이지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양식 포함)

• 전형방법 : 공모·경쟁·면접

• 출전자 : 2015년 11월 16일(월) ~ 12월 11일(금)

•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15. 11. 16(월) ~ 12. 11(금)

•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15. 12. 11(금) ~ 12. 12(토) 10:3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nu.ac.kr)

• 전형료 : ₩50,000(입금계좌 : 하나은행 278-910030-40505 / 예금주 : 법무대학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대학교학부(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학업계획서 1부

• 문의처 : 전화: 02-961-0905 홈페이지: interlaw.knu.ac.kr

• 다양한 장학 혜택

• 입학 및 재학 시 성적에 따라 수료 100~50% 면제

• 학사조교 교무자 수료로 전액 면제 가능

• 가계 곤란자 대상 수료 100~25% 지원

• 기숙사 입사자 전원에게 기숙사비 50% 지원

• 교내 연구프로젝트 참여 시 수당 지급

2016학년도 전기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전공

구 분	학 과	전 공
석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공공법학과 중국법학과 지적재산법학과 조세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미국법전공, 자산관리법전공 입법전공, 공법전공, 경찰·안전법전공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전공 조세법전공
● 정학제도		
구 분	정학금	지급기준
공무원장학	수입료 2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
공공기관장학	수입료 2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재직자
외국인장학	수입료 30%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평생교육장학	수입료 20%	사이버대학원(방송통신대학원 포함) 졸업예정자
조교장학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용된 자

※ 국가고시장학, 성적장학, 모범장학, 총장장학 등 기타 장학제도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강의 – 주중(야간) 및 주말 개설

● 경희전형 일정

• 서류접수 : 2015. 11. 16(월) ~ 12. 4(금)

• 전형일 : 2015. 12. 5(토) 10:3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nu.ac.kr)

• 전형료 : ₩50,000(입금계좌 : 하나은행 278-910030-40505 / 예금

보도

#. 지난달 30일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10월 공시자료 15개 항목이 공시됐다. 이날 발표된 공시 항목에는 안전관리 현황, 교사학보 현황, 기숙사수용현황, 2학기 강좌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법정부담금, 학교특성화 현황, 학생 규모별 강좌수, 대학 강의 공개 실적,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등이 있다.

이에 우리신문은 교육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자료구입비 및 장서 수, 법정부담금 그리고 안전관리 현황을 두면에 걸쳐 자세히 살펴본다.

순서

대학알리미① - 전임교원

우리학교의 이번학기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49.3%다. 지난학기 48.9%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40% 후반에서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임교원 책임시수 상황조정에 관한 논의는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태다.

대학알리미② - 자료구입비

학생 1인당 장서수는 올해 75.2권으로, 3년째 75~76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1인당 자료구입비는 2년 전부터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 1인당 자료구입비는 2013년 1인당 자료구입비 208,000원에서 약 30% 감소한 138,700원으로 나타났다.

대학알리미③ - 법정부담금

우리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비율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감소하는 추세다. 2013년 99.9%를 기록한 법인 법정부담금 비율은 지난해 65.2%로 하락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더 낮은 59.4%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법인 측은 “재정문제로 인해 직원 건강보험까지 부담하기 어려워 법정부담금 비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대학알리미④ - 안전관리

우리학교 건물안전점검과와 실험·실습실 관리 현황을 중심으로 짚어봤다. 우리학교 건물중 40년 이상된 건물은 총 11곳으로, 이중 1곳은 안전점검에서 B등급, 나머지 10곳은 등급 미지정됐다. 우리학교 건물안전점검과, 가장 하위 등급인 D·E등급에 속하는 건물은 없었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보인다.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경쟁대학과 격차 여전 책임시수 상향 조정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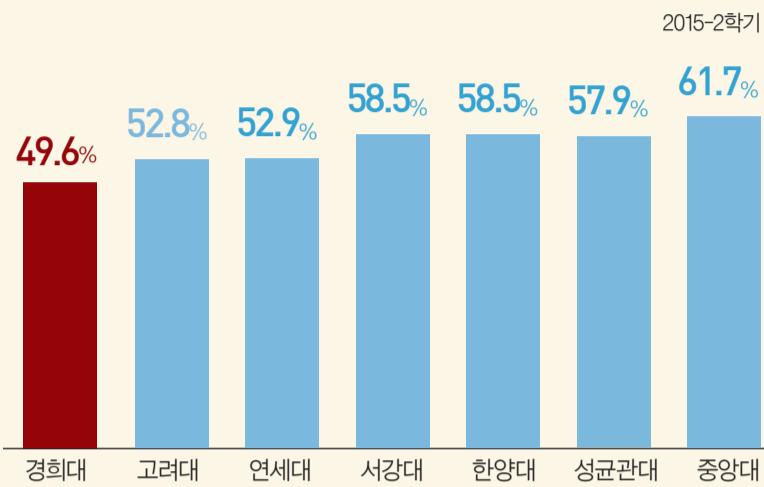
대학알리미① - 전임교원

김도엽 기자 wogmd567@k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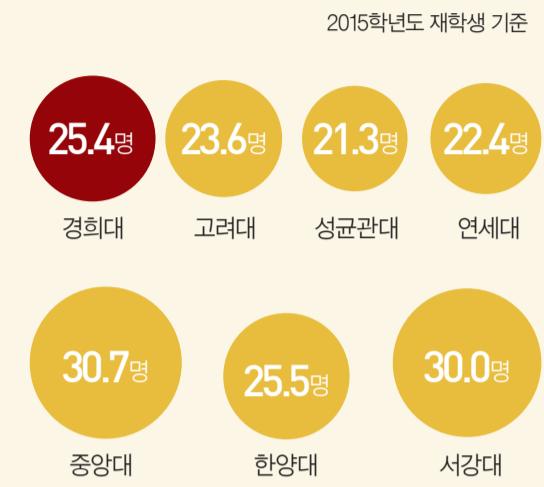
지난달 30일 공개된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5년 2학기 우리학교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49.3%로 사립대학 전체 평균 63.9%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사립학교 평균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지난해 62.2%에서 63.9%로 1.7%p 늘어난 것에 비해 우리학교는 0.5%p만 증가했을 뿐이다.

타 대학과의 격차는 여전했다. 주요 경쟁대학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대부분 줄거나 증가 추세가 미미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학교는 간격을 좁힐만한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못했다. 강의담당비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책임시수와 전체 강의수와 관련이 있다. 지난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15시간으로 늘리겠다는 학교의 입장은 “현재 진행 중”이다. 교무과 박준 계장은 “책임 시수를 15시간으로 늘리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절차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체 강의수는 13년 8,243개, 14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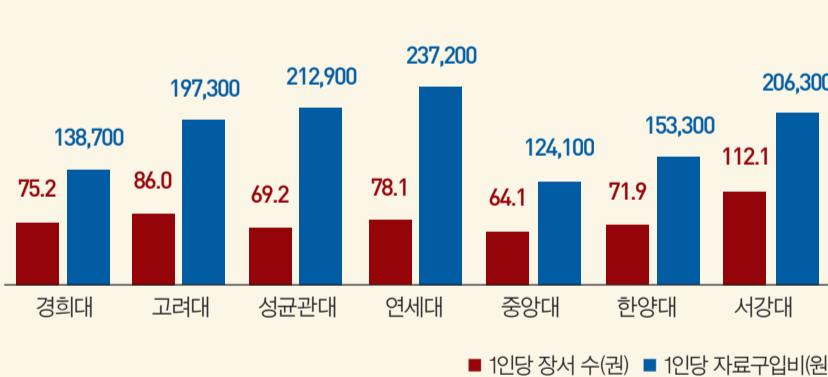


년 7,696개, 올해 7,497개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번 2학기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도 전임교원 숫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전체강의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 강의담당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된다.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지난 2015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에서도 영향을 끼쳤다. 올해 중앙일보 대학 평가 교육여건 부분 세부 지표로 전

입교원 강의담당비율이 신설됐는데, 우리학교의 순위는 40위권 밖이었다. 그 결과 교육여건 부분 순위가 지난해 18위에서 올해 23위로 하락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부분에서는 주요 경쟁대학(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6개 대학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25.4명으로 약간 적었다. 우리학교를 제외한 6개 대학의 평균은 25.6명으로 우리학교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최근 3개년 변화 추이를 보면 13년 24.2명, 14년 24.7명 올해 25.4명으로 수치가 점차 나빠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재학생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전임교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전임교원 확보율이 13년 81%, 14년 79.3%, 15년 77.06%로 떨어진 것과 연관이 있다. 교무과 박 계장은 “지난해 퇴직한 교수의 수만큼 신규 교수들을 충원하지 못해 올해 전임교원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6~7년 전에 비해 학생 수는 비슷하지만 전임교원 수가 400명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이번 2%p 하락이 전임교원 확보율이 늘고 있는 추세에 크게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2년 전 대비 30% 감소 장서수는 75~76권 수준 유지

(주요대학 1인당 자료구입비 및 장서 수 현황)



대학알리미② - 자료구입비

김도엽 기자

(우리학교 학생 1인당 장서 수)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간 증가 장서 수는 줄어들고 있다. 연간 장서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1인당 장서 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폐기하는 장서 수도 같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3년 장서 폐기 수는 36,719권에서 15년 21,393권으로 40% 가량 줄었다. 재학생 수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하는 장서의 수가 줄어 학생 1인당 장서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자료구입비 문제와 같이 장서 구입 예산이 줄어 나타난 결과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75~76권의 1인당 장서 수를 지속적인 장서 구입과 기증도서 확보를 통해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1인당 장서 수는 75~76권 수준을 유

법정부담금 비율 59.4%로 2년째 감소 법인 측, “모두 부담하기 힘들어”

대학알리미③ - 법정부담금

김도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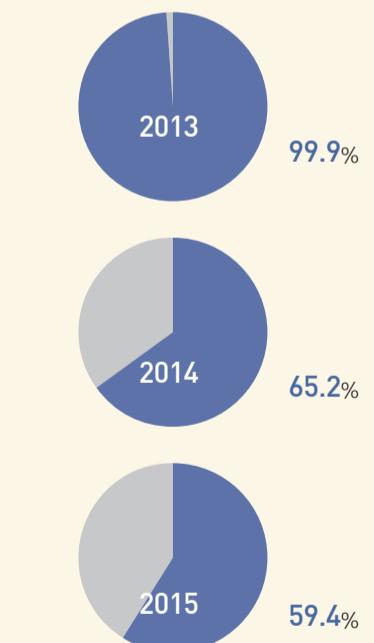
우리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비율이 대학알리미 10월 공시자료 2014년 기준 59.4%로 최근 3년 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이란 교수와 학교직원을 고용한 법인이 피고용인의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금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법인이 이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 47조 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 후 학교에서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학교 법인 경희학원은 2012년 법정부담금을 99.9% 지급했지만 13년 65.2%, 14년 59.4% 만을 지급했다. 경희학원 이해진 계장은 “사학연금은 100% 충당하고 있지만 최근 법인 재정문제로 직원 건강보험은 부담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2013년 제6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법인은 앞으로 직원 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학연금에 대해서만 부담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법인 재정상황과 연결된다. 우리학교 교비회계는 13년 180억, 14년 240억, 15년 300억의 이익을 냈지만 법인회계는 14년 220억, 15년 120억의 적자를 기록해 교비에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그러나 교비로 넘겨진 법정부담금이 교비회계 중 비 등록금 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 등록금 회계에서 일부 부담되고 있어 문제다.

우리학교 2015 자금예산서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은 150억 가량으로, 이중 법인에서 부담한 90억을 제외한 60억 중 35억 원 가량이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에서 부담됐다. 지난 2014년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가 학교 측이 법정부담금을 등록금으로

(법인 법정부담금비율 3개년 추이)



부담하려고 해 반발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국제캠 총학은 총 법정부담금 124억 중 법인에서 부담한 79억을 제외한 45억 원을 비 등록금회계에서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이 문제는 2014년 자금예산서를 확인한 결과, 비 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올해 35억 원이 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관계자는 “직원 건강보험의 법정부담금이 등록금회계에서 충당이 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법인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 47조 2항에 따라 사학연금을 제외한 직원 건강보험 부분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교비로 넘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안점 점검결과, D·E등급은 없지만…지속적 관심 필요

대학알리미④ – 안전 부문

류제원기자 jennyoo95@knu.ac.kr
이성민기자 lsm1590@knu.ac.kr

지난달 30일 공개된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통해 교육여건, 법정부담금 등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에는 학내 실험·실습실과 시설물 전반의 안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번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중 1등급과 2등급을 받은 곳이 465개 중 365개로 78%를 차지했다. 4등급과 5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예체능 및 기타 실험·실습실 역시 4등급과 5등급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실험·실습실 안전관리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뉜다. ‘안전점검’에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이 있다.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정기점검은 총 8개 분야에 72개의 항목으로 이뤄져있으며, 연구 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것들의 보관과 관리 상태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서울캠)는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캠퍼스(국제캠)는 관리팀 자체적으로 연 3회 실시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은 좀 더 세밀한 점검 단계다. 총 8개 분야 100개의 항목을 점검하며, 우리학교는 연 1회 시행중이다. 법적으로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그 횟수가 정해져 있다.

국제캠퍼스 관리팀 김연태 직원은 “‘정밀안전진단’은 정기점검을 통해 추려진 대상 실험·실습실에 별도로 실시된다”며 “전문업체에 맡겨 약 1주일 동안 진행된다”고 말했다.

관리팀 전담 직원 두 명

교내 모든 실험·실습실 관리

안전환경 관리자에 대한 공시 또한 존재한다. 우리학교는 자료공시상으로는 안전환경 관리자가 5명 뿐이지만, 실제론 관련법 ▲6조의2 1항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의 안전환경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에 의거, 양 캠퍼스에 각각 전담 1명, 겸임 2명으로 총 6명의 안전환경 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환경 관리자 1인당 담당 실험·실습실 수를 따져보면 그 수가 충분한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이 있는 전국 187개의 대학은 평균 167개의 실험·실습실이 있다. 반면 우리학교에는 465개의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이 있어 전체 대학 평균보다 무려 298개가 더 많다. 이는 전체 대학 평균 안전환경 관리자 한 명이 평균 64개를 관리하는데 비해, 우리학교는 한 명이 평균 93개를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직원은 “대부분의 대학 전담 직원의 수는 비슷하다”며 “본연의 업무를 갖고 있는 겸직 관리인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부 실험·실습실에 사용하지 않는 시약이나 기계가 많아 공간이 복잡하다”며 “정리 정돈이 이뤄지면 실험·실습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호흡기질환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우리학교 동물 실험·실습실의 안전을 짚어봤다. 우리학교 서울캠에는 의학전문대학원(1), 이과대학(3), 한의과대학(1), 약학대학(2), 생활과학대학(1), 치의학관(1)에 9개의 실험·실습실, 국제캠 생명과학대학(1)에 한 곳의 동물 실험·실습실이 있다.

동물 실험·실습실은 사육환경에 따라 크게 ‘SPF(Specific Pathogen Free) 동물실험실’과 ‘Conventional 동물실험실’로 나



된다. ‘SPF 동물실험실’은 ‘Conventional 동물실험실’보다 위생 기준이 더 엄격한 곳으로 특별히 지정된 미생물·기생충에 감염되지 않은 동물들의 실험이 이뤄지는 곳이다. 반면 ‘Conventional 동물실험실’은 위생기준이 ‘SPF 동물실험실’보다 낮은 곳으로 보통의 사육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동물들의 실험이 이뤄지는 곳이다. 동물 실험·실습실은 다른 곳과 달리 동물실험실 유지관리 체크리스트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는 동물과 관련된 점검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점검항목 불량 시 관리요령에 관한 내용도 포함한다.

국제캠 생명과학대학 이은아(유전공학) 교수는 “동물 실험실인만큼 청결, 사

육, 기기 점검, 소독, 케이지 세척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매일 작성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인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를 벽에 붙여 놓는 등 프로토콜과 관련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교육 외에 실험실 차원에서 선·후배 간 안전교육 전수도 하고 있다”고 실험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편, 우리학교 산학협력단은 동물 실험실에 전반적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약학대학이 ‘AAALAC 완전인증’을 취득했으며, 2012년에는 국제캠

페스가 LMO 안전관리 우수 연구시설로 선

정되기도 했다.

이번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의 건물 안전점검 결과 D등급과 E등급 건물은 한 곳도 없다. 그러나 40년 이상된 건물 11곳 중 1곳만이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40년 이상된 건물 11곳, 1곳은 B등급, 10곳은 등급 미지정

안전점검 결과 양 캠퍼스 총 78개 동 중 A등급을 받은 건물은 31개로 39.7%, B등급을 받은 건물은 27개로 34.6%, C등급을 받은 건물은 10개로 12.8%를 차지했다. 등급이 미지정으로 나타난 건물 역시 10개로 12.8%다.

A등급은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B등급은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C등급은 보조 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D등급은 주요 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 상태, E등급은 주요 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 손상이 발생했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관리팀 김경현 계장은 “우리 학교에서 C등급을 받은 건물 중 균열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이후 상시 구조보강 공사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된 건물은 대학본부, 중앙도서관, 교수회관, 이과대학 서관, 문리대학관, 이과대학 동관, 정경대학관, 신문방송국, 음악대학관, 학생회관, 의과대학원 제1의약관 등 11곳에 달한다. 그 중 중앙도서관, 정경대학관, 음악대학관, 의과대학원 제1의약관만이 정밀점검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대학알리미 공시에서 안전등급이 나온 곳은 의과대학원 제1의약관(B등급)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김 계장은 “2012년을 제외한 다른 연도엔 안전등급이 따로 나오지 않아 미지정으로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계장은 나머지 6개의 건물에 대해 “대학본부와 신문방송국은 제외한 4개 건물은 지난 6월에 안전점검을 받았다”며, “자료 제출 당시 점검이 완료되지 않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안전점검 결과는 내년에 반영된다”며 추가로 “대학본부와 신문방송국은 2016년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 점검을 완료한 4개 건물은 모두 C등급이 나왔다.

우리학교는 건물 안전점검을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학교 건축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에 의거해 각 건물의 노후도와 위험도를 자체 점검해 우선순위에 따라 7개 건물에 대해 구조 안전진단 또는 정밀 안전점검을 거쳤다. 또한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65조 및 동법 시행 규칙 32조에 의거해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전기안전진단을 3년마다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소방시설물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조에 의거해 전문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매년 전문기관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 점검 및 종합정밀 점검을 2회 시행한다. 또한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13조에 의거해 매월 전문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안전검사를 시행한다. 이외에도 ▲가스 설비는 도시 가스사업법 17조에 의거해 해당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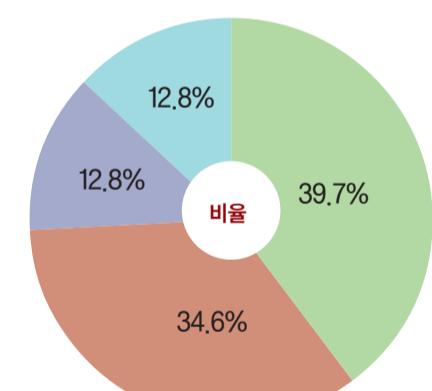
“예산문제로 전담관리인 어려워 겸직 관리직원 충원 검토”

건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내부 규칙은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 2가지로 나뉜다.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로부터 20년 이상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며, 정밀점검은 준공일로부터 10년~20년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우리학교의 건물 관리인은 총 18명으로 전원이 겸임 관리인이다. 이는 서울 6개 대학 평균 8.6명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김 계장은 “학교 예산상 전담 관리인을 두기 어려워 직원들이 협력해 관리하고 있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겸직 관리직원 충원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양 캠퍼스 건물 시설안전관리 등급별 비율)

■ A등급 ■ B등급 ■ C등급 ■ 등급미지정



한편 대학알리미 공시내용에는 기숙사 소방안전점검관리 항목도 포함됐다. 기숙사 소방안전점검관리는 소방안전점검과 소방안전교육을 말한다. 소방안전점검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1년에 2회 실시한다. 학교 안전관리팀에서 교내 전 건물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서 측의 의견에 따라 보수를 하는 시스템이다. 김 계장은 “이외에도 방화대행(전문업체와 연간 계약을 통해 주 1회 오동자 확인 및 소방시설 작동 점검), 자체 보수 반을 통한 상시 시설보수작업과 정비를 하고 있다”며 “노후화되고 오작동하는 소방시설을 즉시 개선하고 보수해 상시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SPF동물 : Specific Pathogen Free 동물, 특정한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되지 않은 실험동물을 의미한다.

*SOP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조직 내 복잡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신뢰성 있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표준운영절차 혹은 관리 운용 규정을 말한다.

〈주요 경쟁대학 안전환경 관리자 수 및 실험·실습실 안전등급 현황〉					
학교	안전 환경 관리자 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경희대	5 (2)	197	168	100	0
고려대	2 (1)	87	334	88	0
서강대	2 (1)	102	156	58	0
성균관대	16 (1)	120	312	73	0
연세대	2 (1)	480	64	188	1
중앙대	2 (1)	304	126	4	0
한양대	4 (1)	80	499	68	0

※ ()은 전담안전환경 관리자 수

건물명	준공년도	안전등급	안전점검 실시현황	사유
1 대학본부	1956	미지정		2016 예정
2 중앙도서관	1968	미지정	2006.07 (원형서고)	안전등급부재
3 교수회관	1960	미지정	2015.06	자료 제출시 미실시
4 이과대학 서관	1969	미지정	2015.06	자료 제출시 미실시
5 문리대학관	1961	미지정	2015.06	자료 제출시 미실시
6 이과대학 동관	1960	미지정	2015.06	자료 제출시 미실시
7 정경대학관	1967	미지정	2015.06	안전등급부재
8 신문방송국	1954	미지정	2011.10	2016예정
9 음악대학관	1960	미지정		안전등급부재
10 학생회관	1971	미지정	2010.03	자료 제출시 미실시
11 의과대학관 제1의약관	1968	B등급	2015.06	-

선거

“대학생 생활 문제 해결에 최선… 팀 과제 절대평가도 추진할 것”

정후보 정주희(사회학 2012) / 좌
부후보 단재민(미술학 2010) / 우

서울캠 총학생회 후보 '취향저격'

최병현 기자 chbh1027@khu.ac.kr
유정아 기자 yuangel@khu.ac.kr

Q. 입후보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정주희 정후보(정) - 많은 학생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생활비 문제가 학교생활에까지 지장을 주는 모습을 보며, 실생활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을 느껴 출마하게 됐다. 이전 47대 총학에서 사무국장 일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지켜봐 왔기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여러 고민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 단재민 부후보(부) - 올해 미술대학 학생회장직을 수행하며 여러 일을 진행하다 보니, 청년 문제에 공감하게 되어 정후보와 함께 뜻을 맞추게 됐다.

Q. 선본명은 무슨 뜻인가?

A. 정 - 우리학교 학생들의 고민거리에 대해, ‘경희인’ 모두가 만족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뜻으로 ‘취향저격’이라는 선본명을 사용하게 됐다.

Q. 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A. 정 - 세 가지 청년문제의 해결을 하고자 한다. 대학생-정당 간 정책협약, 교통비와 자취지원금 1억 원 신설, ‘경희타요’ 버스 등 대학생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 핵심이다.

Q. 대학생-정당 간 정책협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어떠한 정책을 제안할 것인가?

A. 정 - 희망리서치에서 대학생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 주거, 고용 분야에서 대학생들의 수많은 고민을 염두 수 있었다. 따라서 참고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당이나 자자체에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해나갈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실질적인 정책 협약까지 이루어내는 것이 목표다.

A. 부 - 청년 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만약 우리학교 학생들이 특별히 더 바라는 정책이 있다면, 의견수렴을 통해 동대문구에 직접 제안하여 학생들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Q. 교통비와 자취지원금 1억 원을 마련할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A. 정 - 재정 문제의 경우, 우리학교 재단에서 투자와 수익 활동을 위해 설립한 법인 KMC에서 나온 수익금을 바탕으로 재정을 확보할 예정이다. KMC에서 나온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교육관련 재정에 사용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비와 자취지원금 1억 원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 부 - 아직은 교통비와 자취지원금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학생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배분기준을 더욱 꼼꼼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 있는 여러 장학제도를 검토하고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하

고 싶다.

Q. 기존에 설국버스와 학생 지원처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스쿨버스가 있는데, 그것과 ‘경희타요’의 차이가 무엇인가?

A. 정 - 경희타요는 기존의 스쿨버스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개념은 아니다. 기존의 본교 통학지원 시스템에 좀 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확립되지 않았지만, 선거 이후 수요조사와 학교 측과의 논의를 통해 노선의 개수나 시간대의 다양성 등을 개선해갈 계획이다.

Q. 팀플이 있는 수업에 절대 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사실상 교양이나 전공 수업 대부분에 팀플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A. 정 - 팀플은 조원들 간의 협력을 통해 집단지성으로 더 나은 성과와 배움을 얻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수업에서 상대평가를 한다면 진정한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상대방보다 점수를 더 잘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선본은 팀플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공약으로 제시했다.

Q. 중간점검제도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가?

A. 정 -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거나 시험을 치르면 그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은 드물다. 과제를 위한 과제일 뿐 실력향상에는 도움이 거의 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간점검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좀 더 나은 학습권을 보장해고자 한다.

Q. 단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긴장이나 관심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방안은 있나?

A. 정 - 강의실을 직접 방문하는 등 공약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청운관 지하 1층 쉼터나, 청운관 앞 벤치를 방문하여 학우들에게 ‘어떤 종학이 필요한지’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을 받으면서 소통한다. 공약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Q. 마지막으로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A. 정 - 제가 체감한 문제에서부터 주변지인이나 설문결과를 토대로 한 학생들의 문제들까지,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출마한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성차별 경험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우리의 문제”

서울캠 총여학생회 후보 ‘투게더’

권윤지 기자 happitice2@khu.ac.kr

Q. 입후보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육지은 정후보(정) - 2012년부터 직접 총여학생회(총여)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 올해 반(反)성폭력 학칙을 개정했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상생활 중에 종종 들리는 가벼운 성적 농담도 사실은 성희롱이다.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을 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바꾸고 싶다.

A. 성미래 부후보(부) - 작년에 총여 존폐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는데, 대자보에 적힌 ‘실제로 학내 성차별이 있나?’는 질문을 보고, 성적 농담으로 인해 기분이 안 좋았던 경험을 떠올렸다. 당시엔 나 혼자 괜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돌이켜보니 그 말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성차별적인 언어나 성폭력에 대해 재정의하고, 종여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바꾸고 싶다.

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는데, 대자보에 적힌 ‘실제로 학내 성차별이 있나?’는 질문을 보고, 성적 농담으로 인해 기분이 안 좋았던 경험을 떠올렸다. 당시엔 나 혼자 괜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돌이켜보니 그 말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성차별적인 언어나 성폭력에 대해 재정의하고, 종여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바꾸고 싶다.

Q. 선본명은 무슨 뜻인가?

A. 정 - 일상생활 도중 성적인 차별이라고 느꼈던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아가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투게더 : 일상의 이야기를 모아 하나 되는 여학생’이라는 선본명을 사용하게 됐다.

Q. 공약 중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A. 정 - ‘소통up 공약’이다. 언제든지 여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화장실이나 여학생 휴게실에 ‘계시판’과 비 공개적인 방법으로 사연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응답함’,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을 넘어 온라인 소통창구 ‘KHU 女실시간톡’을 마련하고자 한다.

Q. 오프라인 응답소와 달리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학생이 여학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A. 정 -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우리학교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이메일 인증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이메일 주소로 성별을 확인하거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피드백을 받겠다.

Q. 전임 총여학생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A. 정 -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있었다.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 당사자인 학생들이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다.

A. 부 - 여학생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포스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주점을 부탁해’, 반성폭력 학칙 개정, 천 개의 공감 강의 중 교수의 차별적인 발언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점들을 미루어보아 잘 한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A. 정 - 여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직접 여학생들을 만나려 가고 싶다.

A. 부 - 선거 활동 때부터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보여드리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는 총여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정후보 육지은(철학 2010) / 좌
부후보 성미래(아동가족학 2014) / 우

남녀 공감 심통 → 의사소통워크숍

학생지원처 여학생과에서는 '2015 고교교육정상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건강한 이성관계를 통해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돋고자 워크숍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제 : 이성관계에서의 갈등 이해와 의사소통
일시 : 2015.11.25.(수) 13시~18시(식식포함)
장소 : 학생회관 1층 학생지원처 중세미나실
대상 : 남·녀 학부 재학생 15명 내외
[참가자] 50% 이상은 신입생(1학년)
강사 : 유정훈 (젠더심리상담교육원 원장)

접수기간 : 2015.11.09.(월) ~ 11.20.(금)
신청방법 : 여학생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e-mail로 신청
여학생과 홈페이지 : <http://web.khu.ac.kr/~wss0208/>
문의 : Tel. 02-961-0208 e-mail - khsa0043@khu.ac.kr

제41회 중앙도서관 독서토론회

- 강 연 : 진화심리학자 전중환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주 제 : “진화, 인간 본성, 그리고 삶의 의미”
- 일 시 : 2015. 11. 18. (수) 오후 3시
- 장 소 :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 강사 주요 저서
 - 오래된 연장통 /전중환 지음, 사이언스북스, 2010
 - 욕망의 진화 /데이비드 버스 지음, 전중환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7

* 강연 후 추첨을 통한 도서 증정 행사가 있습니다.

“인간은 왜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인간의 마음도 진화의 산물이라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진화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은 수백만년 전 수렵-채집생활을 했던 우리의 먼 조상들이 생활하면서 겪었던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끔 자연 선택에 의해 장착된 여러 심리적 도구들의 묶음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이 어떻게 우리 주변의 일상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삶의 의미나 목표 같은 의문들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본다.”

— 강연 요약

* 문의: 중앙도서관 열람과 T.02-961-0074,0078 khsd3015@khu.ac.kr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지식창업교육센터 11~12월 특강 시리즈

- 장소: 공학관 107호(12/10 추후 공지)
- 강사: 대기업임원진 (취업진로가이드)

B2B산업과 기업의 이해
LG화학, 이석기 인재활보팀/채용총괄부장
11/17(화) 10:00~11:30

기술개발이전사례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임진호 기술전략실장
11/18(수) 15:00~16:30

B2B기업의 고객가치제안사례
LG CNS, 김우진 컨설팅사업부 수석부장
12/8(화) 10:00~11:30

기업의 투자방법 및 투자사례
한국투자파트너스, 김종필 CIO(최고투자책임자)
12/8(화) 15:00~16:00

미래세상의 창조
퀄컴, 박문서 한국지사 부장
12/10(목) 15:00~16:00

- 주관: 지식창업교육센터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단
- 후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취업지원, 한국발명진흥회

경희대학교 지식창업교육센터

“역대 가장 큰 선거본부…자치회비 감사기구도 투명성 높이겠다”



정후보 김병경(체육학 2009) / 좌
부후보 박수지(산업경영공학 2014) / 우

국제캠 총학생회 후보 KHU&KHU

이시온 기자 dtldms77@khu.ac.kr

Q. 선본명 KHU&KHU는 무슨 뜻인가?

A. 김병경 정후보(정) - 역대 국제캠퍼스(국제캠) 선거본부(선본) 중 가장 많은 수의 단체가(외국어대학, 전자정보대학, 응용과학대학, 공과대학, 체육대학, 종여학생회, 종학생회) 하나의 선본에 소속돼 있다. 이렇듯 각기 다른 단과대학들이 연합해 한 단체를 이뤘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슬로건은 ‘하나되어 학우들에게 다가가는 경희와 경희’로, 선본명은 ‘KHU&KHU’로 정했다.

Q. 대표 공약사항은?

A. 정 - 우선 선본의 공통공약부터 말씀드리겠다. 자치회비 감사기구를 설립하고자 한다. 이는 가장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약속이다. 올해 문제가 많았던 자치회비에 있어서 종학생회(종학) 뿐만 아니라 모든 단과대학들이 자치회비 감사기구를 설립해서 학생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시설 대여 시스템의 체계화를 이루겠다. 현재 운동장처럼 대여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못 쓰고 있는 시설들이 많다.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외국어대학을 본보기로 삼아, 시설 대여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카카오톡 앤로우 아이디’를 만들어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겠다. 그간 종학과 각 단과대학의 취업 프로그램, 행정정보 등은 페이스북으로 공지돼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SNS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때

문에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해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공약들의 세부 내용이 궁금하다. 먼저 ‘형식적인 강의평가 개선’ 공약은 어떤 것인가?

A. 정 - 사실 처음 도입하려고 한 제도는 직접적인 교수 평가제였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온라인 강의 평가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개선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영어강의 평가 문제 또한 강의평가 개선이 달성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대자보·거치대 확충은 대자보를 설치할 수 있는 교내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뜻인가?

A. 정 - 공간 마련의 의미는 아니다. 타 학교에 많이 존재하는 나무 소재의 이동 가능한 거치대를 설치해 캠퍼스 지도를 걸어놓거나 기타 홍보에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덧붙여 각 단과대학의 게시판을 생명과학대학의 게시판처럼 바꿀 생각이다. 생명과학대학의 게시판은 종이를 끼우는

형태로 돼 있어 따로 스테이플러가 필요 없다. 이를 본보기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홍보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Q. ‘학우 소통의 날’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A. 정 - 이전 POWER라인 선본에게서 영감을 얻어 생각하게 됐다.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매주 수요일 점심에,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학생들을 만날 계획이다. 의문이여도 좋다. 회장과 부회장이 변갈아가면서 학생들을 만나 ‘직접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Q. 화제가 되고 있는 ‘본·분교’ 관련 공약도 있다.

A. 정 - 본·분교 문제에 대해선 매년 국제캠 학생회가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하지만 그간 뚜렷하게 실천했다고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구성원들 인식’에 따라 이행 여부가 나뉠 수 있는 공약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번에 우리는 구체적인 항목(회의체계 국제캠 이전, 입시정보 통합 표기, 일부학과 다전공·전과 불가 문제해결)을 세워 문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캠 대표자들과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TF팀을 만들어서 서울캠과 함께하는 공동 회의체계를 꾸려 해결하겠다.

Q. 마지막으로 선거에 나서는 포부를 말해 달라.

A. 정 - 오랫동안 선거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그간 소속된 단과대학(체육대학)의 이미지 때문에 최근까지도 안타까운 일을 많이 겪었다. 당선된다면 그간 제가 준비해온 여러가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고, 체육대학에 대한 인식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후보자로서, ‘사람 김병경’으로서 학생들에게 정당하게 평가받고 싶고, 진심으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A. 부 - 그간 어떤 직위를 갖고 학생회 일을 해본 적은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회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후보자 선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모든 것을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만약 당선이 된다면 같은 자세로 학생들에게서도 모든 것을 듣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투표권 남학생에 개방하고 ‘총여’ 조직명도 바꿀 것”

국제캠 총여학생회 후보 ‘KHU&KHU’

강경진 기자 cocaandlisa@khu.ac.kr

Q. 입후보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이유진 정후보(정) - 47대 총학생회(총학)에서 집행부원으로 일하며 총여학생회(총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총여가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 학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 현 총여 측에서 입후보 제의가 들어와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Q. 선본명 ‘KHU&KHU’는 무슨 뜻인가?

A. 정 - ‘KHU&KHU’는 하나가 되어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경희와 경희라는 뜻이다. 모든 단과대학이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지은 이름이다.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총여와 단과대학이 하나되어 학생들에게 다가가겠다.

Q. 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A. 정 - 투표권을 남학생에게 개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총여 후보 선거권과 추천권은 여학생에게만 주어졌다. 그러나 총여는 더 이상 여학생들만을 위한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예산운영 역시 전체 구성원의 자치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학생 모두를 위한 단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고 싶다.

Q. 투표권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 달라.

A. 정 - 각 단과대학, 종학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총투표에 총여 투표권 개방 안건을 상정할 것이다. 물론 학생총회를 열고 학교와의 내부적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예산과 세칙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해 총여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어

렵고 복잡한 과정이지만 선거본부위원회 내부에서 많은 협의 후 내린 결정이다.

Q. 학생회 이름을 변경하겠다는 공약은 어떤 의미인가?

A. 정 - 학생 모두를 위한 총여를 만들고자 총여 투표권을 남학생에게 개방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학생총투표 안건 상정을 통해 아예 총여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Q. 총여 세미나실 카페화는 어떤 의미가 있다?

A. 정 - 총여 세미나실은 모든 학생에게 개방되었음에도 이용률이 낮다. 총여 세미나실을 카페화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임을 전하고 싶다. 이를 통해 총여는 모두를 위한 학생회라는 것을 알리고 학생들이 총여를 좀 더 친근하게 여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Q. 현 총여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A. 김지향 부후보 - 47대 총여 집행부로 일하며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구성원 선생님의 성교육이나 대동제 때 설치한 부스 등 상대적으로 홍보가 잘 이뤄져 성공한 사업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점이 안타깝다.

Q. 현 총여와 달라지는 점이 있는가?

A. 정 - 기본적으로 ‘같을 여(如)’를 추구하는 것 즉, 모든 학생을 위한 총여를 만들고자 하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투표권 개방과 학생회 이름 변경을 통해 변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싶다. 또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학생참여를 높이고 학생과 소통하는 총여가 될 것이다. 각 단과대학 여학생운영위원회와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단과대학별 불편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겠다.

Q.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A. 정 - 큰 변화를 이루고자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날카로운 질타도 총여, 나아가 학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히 수용하겠다. 즐겁게, 밝게, 발로 뛰는 총여가 되겠다.



정후보 이유진(국제학 2015) / 좌
부후보 김지향(국제학 2015) / 우

2015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및 실적등록 안내

2015학년도 2학기 자유선택과목 “사회봉사 1,2,3”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 가능 학점

가. 성적부여 방식 P / F (2014학년도부터 P/F 모두 성적표에 기재)

나. 최대 취득 가능 학점 학기당 1학점, 총 2학점(단, 200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최대 3학점)

● 사회봉사 학점취득 변경내용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항목 2012-2학기 이전 2013-학기부터
취득요건 - 온라인캠퍼스 이수 후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어

떤 경우에도 인정 가능

① 교외봉사 :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서울동행프로젝트(<http://dongheeng.seoul.kr>), 서울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www.vms.or.kr](http://vms.or.kr))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② 교내봉사 : 교내에서 및 단과대학에서 주관하는 봉사 단, 취업진로

지원처와 사전협의 톈아와 함께 봉사를 실시한 경우 ③ 현회 : 일학 후 실시한 본인의 현회에서 원본을 기증한 경우 (현회증서 원본 이외 다른 서류 제출 불가)

문의 : 취업진로지원처 (031-201-3061)

● 사회봉사 학점인정신청 및 실적등록신청

구분 교과목 이수 (학점인정신청) 실적등록

대상 2015-2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학생 전체 학생 및 휴학생

서류 제출기간 2015년 1월 2일(월) ~ 2015년 11월 27일(금) 17:00까지

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일체 서류를 받지 않음

1. 학점인정신청서 1. 실적등록 신청서

2. 봉사활동확인서 원본 및 사본

3. 소감문

- 제출서류양식은 <http://service.khu.ac.kr> / 접속 후 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회봉사 관련 신청서양식은 공식홈페이지 (<http://www.khu.ac.kr> - [공지사항] - [일학])에서 확인

● 기타 세부사항

가. 본사부지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한다.

(같은 날 신청한 현회+봉사활동 등 실적 제출은 1일로 인정)

나. 현회증서 기증을 통한 봉사시간 인정은 일학 이후 실시한 현회에 한하여, 교과목 이수에 요구되는 32시간 중 16시간까지 인정 가능하며 연도별 인정시간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2006. 2.28 이전 2006. 3. 1~2011. 2.28 2011. 3. 1 이후

현회증 1장 당 인정시간 15 8 4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안내

*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Intensive Program 이수자들은 증빙서류 제출한 자에 한하여 상황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여 통과자에 한하여 과목을 면제된다(신청 기간에 제출)

* 공학인증(AEET) 대상자는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영어 학점 인정 불가

나. 외국어대학 대학영어 / 전문영어 이수 면제기준

* 외국어대학 학생교양 이수면제 예시사항

- 외국어대학은 학과적 특성상에 의해 특정과목 수강으로 ‘대학영어’와 ‘전문영어’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

- 자신의 전공이 아닌 타 전공의 외국어: 2년계를 이수하는 것으로 핵심교양 이수를 대체할 수 있음

[대체교과목]

제 1 단계
초급중국어회화1 6
일본어강화1 6
스페인어1 6
리사와어1 6
초급프랑스어1 6

* 상기과목으로 이수면제를 신청하는 외국어대학 소속 학생은 외국어대학 행정실(T031) 201-2201에 별도 접수 바랍니다.

다. 사고와 표현 영역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동후강 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후 구술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2년계 시험 자격 부여

2) 글쓰기 시험 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후 구술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2년계 시험 자격 부여

[이수면제 기준표] * 신청서 제출은 매 학기 자정하여 신청 기간에 제출한다.

단계 내용 평가 방법 학점 비고
1단계 동후강 평가 80점 이상 통과자에 한하여 2년계 시험 자격 부여 P / F로 부여

2단계 글쓰기 시험 80점 이상 통과자에 한하여 2년계 시험 자격 부

기획

제47대 총학
공약점검

#. 48대 총학생회(총학) 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지난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 47대 총학도 이제 임기가 1달 반 남짓 남아있다. 지난해 총학 선거에서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 '오늘의 경희' 선거운동본부(선본)의 이정이(아동가족학 2010)회장과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회장은 전체 유권자 51.30%가 참가한 가운데 찬성표 75.03%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한편 국제캠퍼스(국제캠)의 경우, 전체 유권자 중 52.0%를 얻은 '친KNU' 선본의 김용석(화학공학 2009) 회장과 이서영(식품생명공학 2012)이 32.3%를 얻는데 그친 'Klass Up' 선본을 누르고 당선됐다.

양 캠퍼스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총학의 활동이 학생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신문은 공약 이행정도를 점검해보기로 했다.

‘공공 기숙사’·‘SNS 사업 보고 강화’ 이행, ‘장학문제 개선’ 미이행

서울캠퍼스 총 학생회 공약 점검

이수형 기자 dltdbd112@knu.ac.kr

【서울】 제47대 총학이 성공적으로 이행한 공약은 대형강의 축소·폐지와 공공기숙사 신축지연 해결을 위한 활동이 대표적이다. ‘대형강의 축소 및 폐지’ 공약은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수강인원 130명 이상인 ‘대형강의’를 증설한 것에 따른 대응이었다. 실제로 2014 학년도 1학기에는 후마의 대형강의 수가 1 개에서 38개로 대폭 늘었다. 이후 학생·교수·후마 행정실이 대형강의를 축소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번 학기 후마 강좌 5개가 수강신청 이후 갑작스레 대형강의로 바뀌면서 다시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후마 행정실 측은 후마니타스 교육협의 간담회에서 ‘2016학년도 1학기는 절대로 수강인원 100명이 넘는 강의를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이유로 합의내용이 쉽게 깨진 것으로 보아, ‘학생들 의견수렴’, ‘교무팀과 TF구성’과 같은 단발성 공약은 이행에 성공했으나 큰 실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총학은 ‘공공기숙사 신축’ 공약을 내걸고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해 동대문구청에 공공기숙사 건축인허가 승인을 요구했다. 작년 SPACE21 건설사업단은 동대문구청이 민원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자,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바 있다. 신축결정 이후 총학은 SPACE21 소통위원회에서 ‘공공기숙사내 상업시설에 대한 제안’ 등과 같은 기숙사와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을 남은 임기동안 제안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총학은 ‘대학평가 대응’ 공약의 일환으로, ‘언론사 평가’를 진행하기도

했다. 총학 이정이(2012 아동가족학) 회장은 “대학생답고 재치 있게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언론사 대학평가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개선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총학은 대학이 언론사 평가를 진행하는 신문사에 지출하는 광고비 공개를 요구했고, 현재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학생회 새로나기’
‘장학개선 토론회’ 공약 미이행

약속을 지킨 공약이 다수지만 이행하지 못한 공약들도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학생회 새로나기’가 있다. 총학은 ‘학생회 새로나기’ 공약을 통해 자치회비 감사를 강화해 학생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했다. 지난 9월 열린 제3차 확대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이정이 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학생회가 자치회비를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회비를 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라며 “이는 학생회의 신뢰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학운위 전 구성원은 ‘자치회비 회계감사 확대시행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자치회비 회계감사 확대시행 세부안을 심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제2차 전학대회가 성원 미충족으로 열리지 못해 자치회비 회계감사 확대시행을 위한 세칙개정이 무산됐다. 이 회장은 전학대회 개최 실패를 아쉬워하면서도 “세칙개정은 실패했지만 자발적으로 감사에 지원한 단과대와 학생자치기구를 대상으로 학생참여 회계감사를 진행하겠다”며 “올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차기 총학생회에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자취·하숙생들의 권리 되찾기’를 목표로 계획한 ‘주거권 실현’ 공약 역시 반쪽



지난 7월 17일 ‘성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제5차 회의에서의 모습

짜리 이행에 그쳤다. 총학은 ‘자취생 권리 찾기1,2’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작성·임대차 거래 피해대처 방법을 담은 컨텐츠를 페이스북과 메일을 통해 제공했다. 그러나 ‘회기동 착한 자취·하숙방 콘테스트’는 무산됐다.

‘장학문제 개선’ 공약 중, 총학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이 높은 장학개선 토론회 역시 개최되지 못했다. 지난 1월,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계정에 지난 학기 총학 소속 임원이 장학금을 대리수령했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밝은사회장학’이 개인계좌로 현금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휴학’과 ‘졸업유예(8학기 초과 재학)’ 등의 이유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임원들이 다른 학생의 이름으로 대리수령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로 드러났고, 총학 이 회장은 당시 “장학금 대리수령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국가장학금 시행 이후, 장학금 지급의 투명화 노력이 있는 상태다. 이와 더불어 문제도 되

총학 “학생들과의 소통이
미비했던 것에 아쉬움이 크다”

총학은 주요공약 외에 역사 내일로, 〈힘내라, 장그레!〉 프로젝트, 노후캠퍼스 안전점검요구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경희가족 한마당, 황금마차 수익기부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 회장은 올해 총학 활동에 대해 “소통을 위해 다양한 컨텐츠를 구상했지만, 부득이 실현하지 못했다”며 “학생들과의 소통이 미비했던 것에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한대련 탈퇴’·‘수강신청제도 개선’ 공약 이행, 학생회 예산공약은 미흡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공약 점검

강규연 기자 jennifer024@knu.ac.kr

【국제】 47대 총학생회(총학)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탈퇴 여부에 관한 총투표 ▲수강희망과목담기 제도 개선 ▲영어지원금 확대 및 다변화 등의 공약을 달성했다. ▲장학금제도 확대 및 개선 ▲기숙사 기본권 확보 등의 공약은 추진되지 않았으며, ▲자치회비 및 학생회비 내역 후퇴했다고 평가 받는다.

선거 당시 친KNU선본으로 출마했던 총학은, “대학생연합이라는 명목하에 학생들의 ‘동의 없는 의견’을 표출하는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탈퇴 여부에 대해 총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 25일 총학은 투표율 50.32%를 기록한 ‘한대련 탈퇴에 대한 학생총투표’를 진행했고, 결과는 찬성 69.6%였다. 투표 결과를 토대로 총학은 한대련 의장인 전남대학교 김한성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2013년 총여학생회, 공과대학 학생회, 응용과학대학 학생회에 이어 총학 역시 탈퇴함으로써 ‘한대련’과의 관계는 완전히 청산됐다.

또 다른 주요공약인 수강신청제도의 개선도 이행됐다. 총학 이서영(식품생명공학 2012) 부회장은 후보 당시 “수강희망과 목담기가 강좌의 개·폐강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수강신청이 어렵다”며 “희망과목담기 제도를 보완해 수강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약집에서도 기존 수강희망과목담기의 피드백이 없음을 문제 삼아 이를 개선해 원활한 수강신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에 학교는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2015학년도 2학기 수강희망과목담기’에서 수강희망과목담기를 강의수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희망과목담기’와 수강신청편의를 위한 ‘예비과목담기’로 이원화해 운영했다.

이 밖에 주요공약으로 나온 ‘등록금 동결’, ‘영어지원금 확대’ 공약 역시 이뤄졌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의 경우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정부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선이 대다수다.

‘영어지원금 확대’의 경우 기존 ‘토의시 험응시료’만을 지원하는 제도에서 단과대학이 자율적으로 ‘어학시험 및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예술·디자인대학의 경우 올 8월부터 기존 토의 지원금제도를 폐지했다. 예술·디자인대학 행정실 윤수연 직원은 “일률적으로 토의응시료를 지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논의됐다”며 “기존 토의지원금 예산을 현재 학생 취업프로그램에 활용 중”이라고 전했다. 다른 단과대학도 내년 1학기부터 기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 학생회,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기숙사 기본권 확보’ 공약은 아직 진척 사항이 없다. 친KNU선본은 공약집에서 “5가지 상점조항에 비해 별점조항은 40가지로 규제가 심하다”며 “학우들과 함께 기숙사 규칙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별점 조항과 비교했을 때 체감 가능한 변화는 없었고 몇몇 단서조항이 추가됐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총학 김



지난 3월 24~25일 총 투표 실시 모습

용석(화학공학 2009) 회장은 “현재 제시하는 몇 가지 애니 있다”며 “아직 최종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회비 및 학생회비 내역 전 공개’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공약집에는 “학우여러분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학교 내의 자치기구 및 각 학생회들의 예·결산 공개를 의무화하여 더욱 깨끗한 자치회비, 학생회비 사용을 하겠다”고 했으나, 우리신문이 지난 3월과 7월 보도했다시피 총학 스스로도 자치회비와 학생회비 사용에 대해 제대로 된 공개가 부족했음을 시인했다. 또 자치회비 내용이 투명하지 않아 검찰에 민원이 들어가기도 했다. 이에 지난 9월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예결산안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 김 회장은 “자치회비 결산안을 학생회칙 167조에 따라 한 학기를 기준으로 기록하게 돼 있어서 학기가 끝나고 올리려고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기존 ‘총학생회 회칙의 모호성’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더욱 깨끗한 자치회비, 학생회비 사용을 하겠다”라는 공약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SPACE21의 빠른 추진’의 경우에도 이미 우리신문이 지적했다시피 학생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거의 없었다. 더욱이 SPACE21 사업은 지난 3월에 시작된 종합체육관 건설사업 이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건물조감도조차 나오지 않았다. 또 기존 학생회에서 ‘은밀하게’ 써왔던 총학만의 자치공간(총학생회실 옆 생활방, 소극장 앞 231호, 노조위원회 앞 220호)에 대한 개방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남자휴게실로 사용되고 있는 총학생회실 옆 생활방을 제외하고 잠겨있는 220호와 책상 3개가 전부인 231호는 개방이라고 하기엔 부족해보였다. 이 밖에 버스정거장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실험실습비 확대 및 공개, 강의평가 방법 개선, 영어강의 헐성 제고 등의 공약 역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김 회장은 “힘들었던 만큼 배운 것이 많은 1년이었다”며 “다음 총학은 학생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뛰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학교육의 '질보증제도'가 시급하다

기고문 - 질보증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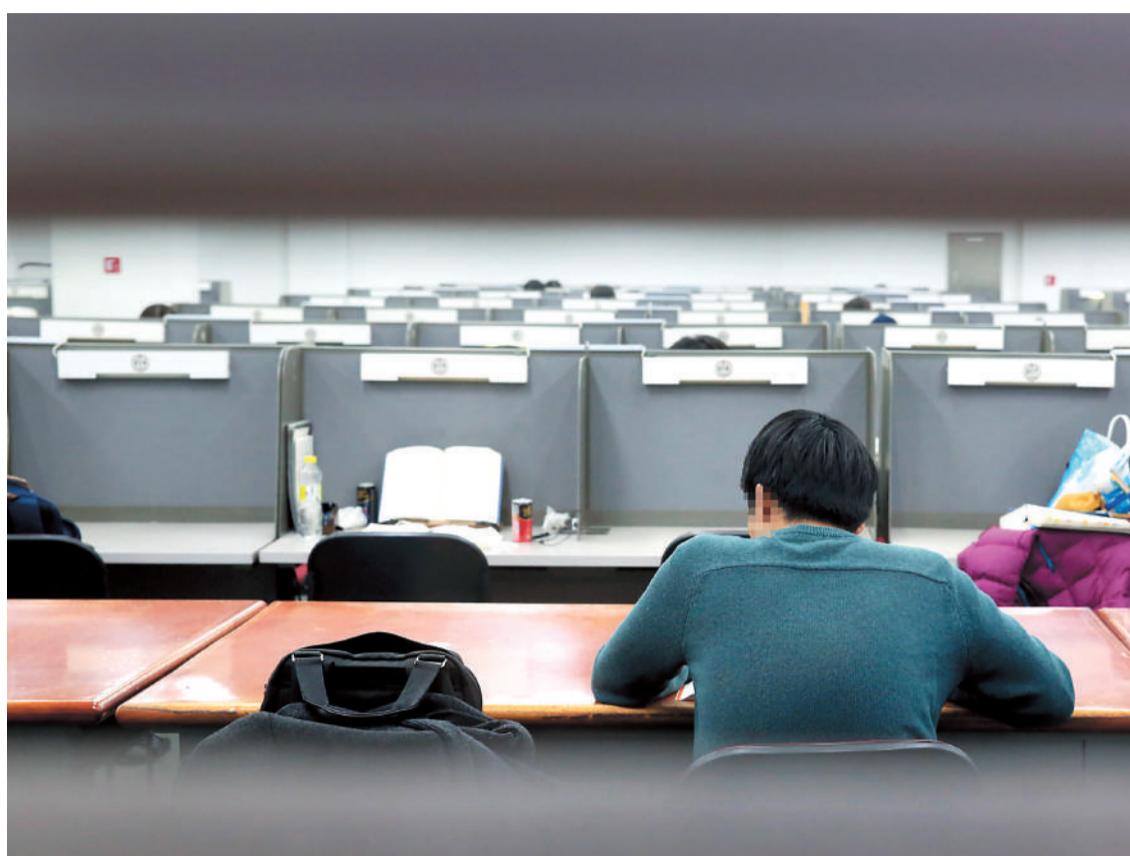
오한석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중앙일보 평가에 졸업생 취업활동, 졸업교육비율, 현장실습 참여 학생비율, 캡스톤 디자인 수업참여 비율 등의 항목이 새롭게 눈에 띈다. 그 배경은 두말할 나위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의 질 보장일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상과 학습목표, 학생의 성취수준을 함께 평가하는 항목이다. 취업과 졸업이 성과라면 나머지는 역량을 보장하는 교육여건이다. 결국 무엇을 배웠느냐보다 배운 지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진로를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우리대학은 아직도 강의실 교육의 의존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가끔씩 가까운 교수들에게 교수가 주는 학점이 무엇을 보장하는 거야? 그 학점을 다 모아서 학사학위를 주는데 학위가 무엇을 보장하는 거야? A와 C 학점이 무엇이 다르지? 하고 물어 보면, 대부분의 교수는 '글쎄요' 한다. 개중에는 강의 열심히 하고 시험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분도 있으나 적합한 답은 아니다.

모든 학과에 질보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학생들은 성적에 목을 매고 있고, 정부는 청년실업, 고등실업자가 늘어 나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정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년 실업은 정부나 학생들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 교수의 책무, 우리 미래의 문제이다. 졸업생의 취업률이 50%대라는 것은 결국 졸업생의 1/2이 꿈을 잃고 상실감에 빠지는 것이다. 이런 나라가 장래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금번 2016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학생의 진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대학의 설립목적은 문화세계의 창조의 역군이 될 지도자 육성이 다. 문화세계는 미래의 세계, 우리가 열어갈 세상이다. 이 세상을 열어갈 역량을 갖춘 인재의 육성이 우리 경희대학이 하겠다는 것이 설립자의 의지이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교육의 질 보증이다.

현재 우리대학은 2016년도 교육과정을 위한 개편이 진행 중이다. 공학 계열의 상당수 학과가 이미 공학인증 평가를 선언하고 개편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금도 취업률이 뒷걸음 치고 있는 상황에 무엇으로 교육의 질을 확보할려는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모든 학과에 나름대로의 질 보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매년 새 학기가 시작하면 3월초에 이력서를 써서 내라한다. 그리고 공개해도 좋은 사람은 매일로 보내라 한다. 대부분 3, 4학년 이력서가 같다. 그러면 왜 너는 3학년이고, 너는 4학년이니 물어본다. 그리고 이력서를 설명하면서 상별과 경력은 학별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것이다. 왜 이렇게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

력이 많으나? 누가 이것보고 공부했다 하겠나? 하면서도 경희대학교 졸업(공학사) 학력만으로 취업할 수 없다는 것에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성과가 전제되지 않는 교육은 진열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달 후 4학년이 되어 졸업 시점에서 갖고 싶은 이력서를 파란색으로 고쳐서 다시 써오라하고, 학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이 졸업후 10년이 되어 성공한 인터뷰 기사가 신문에 났다. 그 내용을 A4 한 장에 써오너라 하고, 그 중에서 몇몇은 공개하면서 물어본다. 네가 성공한 요인을 대학교육에서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 대학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더 이상 궁색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를 더 소개하면, 개학하면서 첫 수업에 앉는 좌석이 대부분 학기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출석을 부르며 네모 칸 안에 학생의 앉은 위치를 전후 좌우 중간을 표시하고 앉는 위치를 바꿔보게 한다. 그리고 뒷좌석만

앉는 학생은 감점한다고 점수를 공고하고 반복적으로 뒷좌석을 지키는 학생에게는 위닝을 주고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 배경은 앞자리의 부담감을 극복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부담감을 호소하였지만, 불편한 건 네가 해결해라! 했더니 책상의 줄과 줄 사이 복도에 새 줄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앞뒤로 자리이동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수업분위기가 교수자 중심에 학생들도 끼어들기 시작하였다. 4~5명을 한 팀으로 배운 지식의 범위 내에서 2주간 설계프로젝트를 수행 및 발표를 통하여 업무수행 역량과 자신감을 볼 수 있었고, 학기말에 자리위치별로 성적분포도 내보았다.

결론적으로 '교육은 변화이다'고 말할 수 있다. 전공지식은 무기이고 역량은 그 무기를 쓸 수 있는 능력이다. 재상과 성과(outcomes)가 전제되지 않는 교육은 진열장에 불과하다. 이제 대학교육은 학생의 진로를 담보하는 인재상과 성과가 임베디드 된 CEA(course embedded assessment) 기반 교육과정이 도입되길 희망한다.

참여마당

유태혁
철학 2015



사과의 첫 경험

초등학교 시절 친구와 크게 싸운 적이 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은 나를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다. 내 얘기를 듣고 난 후, 선생님은 내 두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태혁아 너는 멋있는 사람이잖니. 먼저 다가가서 사과를 하는 용기는 내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나는 사과를 잘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평소 좋아하던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사과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입을 여는 순간 호흡이 가빠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나는 내 자신이 엄청 멋있는 사람이라고 속으로 되뇌며 친구에게 사과를 했다. 그런데 먼저 사과를 하고 나니 기분이 묘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오묘한 기분이었다. 간질간질하면서 무언가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 심장이 따끈따끈해지는 기분이었다. 사과의 첫 경험은 정말로 강렬했다.

어느 샌드우치는 사과가 부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모두가 사과를 잘 하지 않고 잘하지도 못한다. 먼저 사과를 하면 무언가 지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식의 편견을 무의식 중에 갖고 있다. 이러니 먼저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는 것이 정말이지 힘들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일이라는 생각도 존재한다.

사과는 상대방과 내 관계의 소독약이다.

바를 때는 따끔하긴 해도 그래야 상처가 잘 아물다.

부드러운 것이 참으로 강한 것이라는 말을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실천하기가 힘들다. 내가 부드러워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자기 세상 속에서 살기 바쁘다. 상대방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어서 빨리 직장에 가야하고, 학교에 가야하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이다. 머릿속에는 어젯밤에 먹은 치킨이 살로 가지는 않을까 걱정이고, 헤어진 여자친구가 떠올라서 심난하고, 잊고 있던 과제가 생각나서 막막하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버텨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다. 혹시라도 내가 남들보다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할 마음의 공간은 정말이지 눈곱만큼도 없다.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모르고 사과를 회피의 수단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연예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기자회견에서 흔히 말하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시청자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에서부터 한창 패러디가 봇물 터지게 나왔던 한 정치인의 '미안하다!'까지. 이러한 사과는 정말 안하느니만 못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안에 진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사과에는 진심이 필요하다. 진심 어린 사과는 상대방이 알아주기 마련이다. 사과에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화려한 언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진심으로 상대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주면 되는 것이다. 사과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의 소독약이라 할 수 있다. 바를 때는 따끔하긴 해도 그래야 상처가 잘 아물다. 하지만 어설플면 굽어서 터져버리고 그냥 두게 되면 흉이 생긴다. 우리 모두 사과의 따끔한 첫 경험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1면에서 이어짐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사상은 설파한 존 로크는 짧은 시절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서 관리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목도한 미국의 개척자들은 황야에서 한 자루 총에 의지한 채 자신과 가족의 삶을 책임지던 개인이었다. 로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철학을 정립했다고 한다. 미국의 초월주의의 사상가 헨리 데이빗 소로는 "개인이 국가보다 상위의 독립적인 권력이며 개인으로부터 국가의 권력과 권위가 파생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가 개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목적으로 세금을 사용한다면 세금납부를 거부하는 시민불복종의 권리로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백오십년 전에 나온 것이지만 현재의 한국인들에게는 여전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독립성은 아직도 그다지 높은 가치로 여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개인이나 개인주의라는 말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안착되지 않은 오랜 전통에서는 조상과 가문, 그

리고 공동체를 개인보다 우위에 두었다. 이 사고방식에서 개인은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조상의 후예이고 가문, 가족의 일원이며 나아가서는 학교, 회사, 국가의 일원이 된다.

개인이라는 가치는 근대성의 핵심이다. 사회적 지위나 계급, 혈연이나 지연 같은 집단으로부터 벗어날 때 개인이 탄생한다. 개인은 외부의 지시와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 희생되는 사회는 고통 받는 사

회다. 우리 사회의 가족주의, 연고주의, 감상적 민족주의, 국가중심주의, 권위주의, 서열주의 등은 모두 개인주의를 가로막은 집단주의의 다른 이름들이다. 이러한 집단주의는 결코 보편성의 지평, 세계시민의 광장으로 나아갈 수 없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보편화될 때 그때 비로소 한국 사회는 근대의 가장 큰 문제인 차별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시민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khunews@khu.ac.kr
http://media.khu.ac.kr/khunews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문화

▶ 1면에서 이어짐

공동 작업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이점이 따르기 때문에 사업팀은 주민조직화 단계에 가장 큰 공을 쏟았다. 사업팀은 까다로운 선별절차를 통해 9개의 생산자 소그룹을 선정했다. 각 소그룹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룹별 기본 규칙을 정해 협약을 맺게 했다. 또한 커피의 품질을 관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소그룹 대표자를 구성원들이 투표로 선출하게 했다. 이 생산자소그룹 구성 사업을 통해 총 9개의 소그룹이 결성됐다. 이들은 일년에 두 번 정기회의를 개최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운영방식에 대해 토론했다. 이에 대해 손 센터장은 “모든 활동은 소그룹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발적 참여로 운영됐기에 주민들의 조직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조직된 소그룹은 농가에서 ‘레드체리’라고 불리는 커피 열매를 수확해, 직접 지은 작업장으로 운반하여 1차 가공을 거쳤다. 1차 가공이란 레드체리의 외과피를 한 겹 벗겨내 이를 세척하고 건조하는 단계이다. 이 상태의 커피를 ‘파치먼트’라 부른다. 파치먼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커피콩에 얇은 외피가 감싸진 형태이다. 이 상태의 커피는 풍미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 저장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후 사업팀이 전개한 활동은 ‘주민역량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교육’이었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소그룹 운영방식과 민주적 의사결정방법, 그리고 소득분배 방법을 교육했다. 손 센터장은 “동티모르 주민들이 오랜 식민지 시절과 내란을 겪은 탓인지, 아직 구성원들 간의 끈끈한 신뢰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불리 협동조합을 조직해주기 보다는 훗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팀은 주민들이 생산하고 가공한 커피가 어떻게 소비되는지, 커피공정무역사업이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지의 과정을 가르쳤다. 이 교육을 통해 주민들은 피스커피 사업의 맥락과 구조를 이해하고 자체적으로 여러 문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손 센터장의 설명이다.

주민교육을 실시한 이후 사업팀은 각 소그룹이 1차 가공한 커피 파치먼트를 2차 가공하기 위한 그린빈 가공장을 세웠다. 이 그린빈 가공장에서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양질의 원두를 생산한 후 이를 해외로 수출한다.

구출된다.



피스커피 사업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은 현지 주민들에게 사업을 이양하고, 어떤 외부의 지원 없이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출구전략을 실시한 보기 드문 사례다.

히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은 현지 주민들에게 사업을 이양하고, 어떤 외부의 지원 없이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출구전략을 실시한 보기 드문 사례다.

도 앞장섰다. 사업팀은 ‘카페 피스커피’를 설립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또한 그동안 커피 생산자에 머무르던 지역 주민들도 카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카페 피스커피는 ‘공간을 통한 청년 문화 운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이 제공하고, 다양한 세미나와 특강을 수시로 열어 주민들에게 문화를 누릴 기회를 제공했다. 손 센터장은 “초기 고객들은 외국인들뿐이었지만 점점 주변의 관공서 직원들과 인근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찾아와다”며 “돌티모르의

- ① 잘 익은 커피 체리를 고르는 소그룹 구성원들
 - ② 커피 체리를 수확하는 로또뚜 주민
 - ③ 1차 가공을 위해 골라낸 커피 체리를 세척하는 민족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자국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보람됐다”고 말했다. 딜리 그린빈 가공장과 카페 피스카페는 ‘사회적기업 피스카페’로서 동티모르에 경제적·사회적 향상을 가져다주었으며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와 YMCA가 공동 추진한 피스카페 사업의 가치사슬을 완성했다는 이의를 지니다.

근 2년 동안의 피스커피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으며, 우리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와 YMCA는 사메 지역 주민들에게 피스커피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생산자 소그룹으로 활동한 주민들은 피스커피 사업에 참여한 이후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 덕분에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늘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소그룹 구성원들 간의 협동심과 자발성이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으며, 소그룹에 참여한 이후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을 대소사에 앞장 설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한 소그룹 활동을 통해 재정 및 회계 관리 등의 실무를 배웠으며 협동과 신뢰에 바탕을 둔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파치먼트 가공방법이나 커피 품질관리 등의 기술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력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놀라운 점은 소그룹의 일원으로서 피스커피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한 주민들의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소그룹 구성원 이외의 주민들의 소득도 증대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업팀은 딜리 사회적기업과 카페 피스 커피 직원들에게도 피스커피 사업기획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직원들은 사회적기업 피스커피가 최저임금, 연금, 퇴직금, 휴가 혜택을 보장해주는 좋은 일자리라고 칭찬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기업 피스커피가 지속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했고, 피스커피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호평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 피스커피는 직원들에게 바리스타 교육, 영어 및 컴퓨터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두 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한다.

손 센터장은 2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지금에도, 동고동락한 현지 주민들에 대한 진정 어린 애정을 표했다. 그는 이 사업이 주민들 내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오래 남기를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향후 사회적기업 피스커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것인지 아직은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스커피 사업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은 현지 주민들에게 사업을 이양하고, 어떤 외부의 지원 없이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출구전략을 실시한 보기 드문 사례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동티모르의 빈곤이 사라지길 기대해본다. 또한 동티모르 내에 카페 문화가 정착되고, 이 공간에서 청년들 간의 대화를 통한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길 바란다.”

2015 몰련상 영예의 주인공을 공모합니다

2015 목련상, 영예의 주인공을 공모합니다

경희의 66년 역사와 전통 위에 미래대학의 비전을 구현하는 교수 및 교직원을 목련상의 주인공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올해로 7회 째를 맞이하는 목련상은 교육, 연구, 실천 부문에서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핵심 가치를 드높인 구성원을 발굴해, 진취적 학풍과 역동적인 대학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목련상은 경희의 오늘이자 내일입니다. 경희 구성원 모두가 목련상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약 발전을 거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교육, 지구적 파급력을 가진 연구,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위한 실천이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접수일시	2015년 10월 15일(목) ~ 11월 17일(화) 17:00
대상	교수, 교직원, 개인 및 단체
시상분야	교육, 연구, 실천(3개 부문)
시상인원	분야별 약간 명
추천방법	공적서 작성 후 추천(본인 및 타인 추천)
	방문 : 서울캠퍼스 본관 410호 대외협력처 홍보실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통합사무실 대외협력처 홍보실 2. 우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본관 410호 홍보실 3. E-mail : pr@khu.ac.kr
선정절차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선정
수여식	2015년 12월 中 《Magnolia 2015-1부 목련화의》시 시상
문의	대외협력처 홍보실 02-961-0023~6

대외협력처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Dance

2015 무용학부 창작공연



Young
Choreographer's
Dance
Project

■ 일시 | 2015.11.17(Tue.), 18(Wed.) 5pm
■ 장소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관 다목적홀 (102호)
■ 주최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 후원 | 문화한국, 475 한세재단, 문화아이티페스티벌

